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최종보고서

2020. 12.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최종보고서

제 출 문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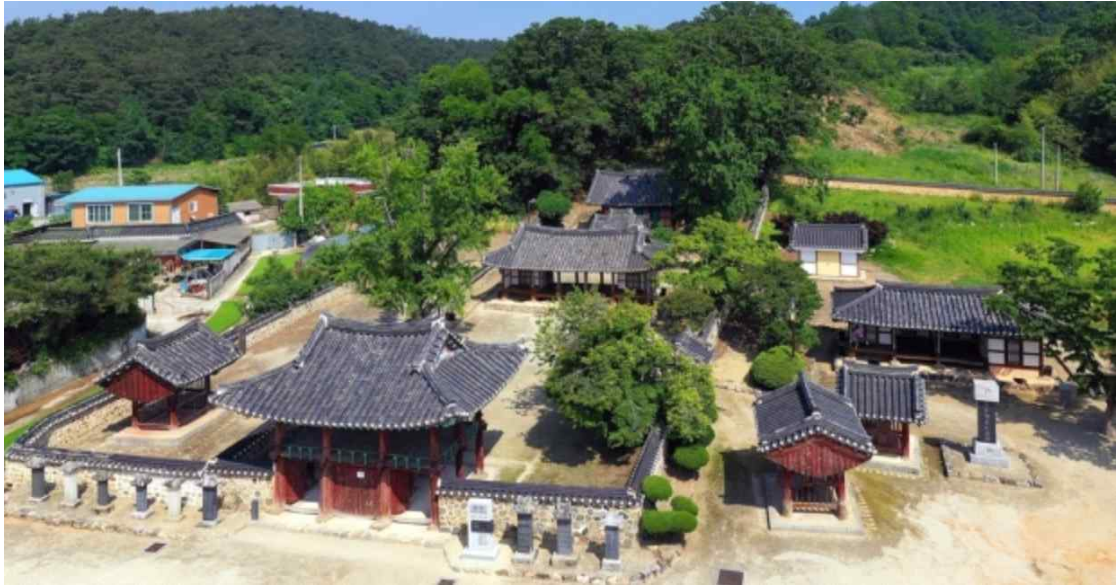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무성서원 홍살문



무성서원 전경



무성서원 현가로



무성서원 태산사



무성서원 강당



무성서원 강수재



무성서원 태산사 삼문

목 차

과업개요	1
무성서원 현판 목록	3
무성서원 현판 번역 예시	9
무성서원 금석문 번역 예시	24
무성서원 현판 원문 예시	38
무성서원 금석문 원문 예시	49
무성서원 소장 고문헌 목록	55
무성서원 활성화 방안	70

과업개요

1. 과업명

- 정읍 무성서원 자료 번역 및 조사 사업 연구 용역

2. 과업배경

- 한국의 서원 중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의 서원 중 전라북도 소재 서원으로 유일한 무성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
- 전라북도 유학 근원 찾기 사업 내에서 정읍 무성서원이 가지는 전라북도 유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 서원 사우 활용에 대한 정책 수립 필요

3. 과업의 목적

-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무성서원 내의 금석문 자료(현판, 편액, 주련 및 비석 등)를 번역하고 무성서원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향후 무성서원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대중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무성서원

■ 내용적 범위

- 1) 무성서원 내 금석문자료의 조사 및 번역
 - 무성서원 내 금석문 자료의 목록화
 - 무성서원 내 금석문 자료 촬영



- 금석문 자료의 탈초 및 입력

- 금석문 자료의 번역

2) 무성서원 관련 자료의 조사 및 기본 해제

- 무성서원 소장 자료의 목록화

- 무성서원 관련 자료의 목록화(자료명, 소장처)

- 무성서원 관련 자료 해제(총괄 정리)

3) 무성서원 자료 번역 사업 및 학술 연구 제시

- 조사 정리된 무성서원 관련 자료 번역 사업 제안

- 번역대상 자료의 선정 및 소요예산

- 무성서원 학술 연구 사업 제안(5개년)

- 학술대회 주제 및 운영 방안

- 연구서 발간 계획 제시

4) 무성서원 활성화 방안 제시

- 서원활용 사업 등 무성서원 활용 사업의 분석

- 무성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무성서원 현판 목록

연번	분류	제 목	저자	연도	서기력
1	편액	武城書院		병자	1696
2	편액	泰山祠	黃煜		
3	편액	講修齋			
4	편액	絃歌樓	孫秉浩	갑진	1904
5	현판	武城書院記	金麟基	병오	1906
6	현판	武城書院記	講長金思謙	병진	1916
7	현판	武城書院記	金直述	임인	1902
8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鳴川先生9代孫 金秉述	병오	1906
9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古阜郡守尹秉	을미	1895
10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李在宇	정사	1917
11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宋持灝	갑인	1854
12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煥一	임신	1932
13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訥菴宋先生11代孫程淳	기묘	1879
14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誠齋金先生10代孫光欽	무자	1888
15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誠齋金先生10代孫丙欽	聖上13년정미	1847
16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尹濟翼	임진	1892
17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鳴川金先生8世孫永朝	병술	1886
18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宋鍾壽	을해	1875
19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全州郡守權直相	갑진	1904
20	현판	武城書院慕賢記	柳源模	계사	1953
21	현판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誠齋金先生10代孫 稷欽	임오	1882
22	현판	武城書院院址復舊記	金煥豐	정축	1937
23	현판	武城書院椅盤重修記	金澤	정묘	1927
24	현판	武城書院牆垣重修記	金煥豐	무진	1928
25	현판	武城書院祭器改修記	金麟基	단기4300	1967
26	현판	武城書院賢宇重修記	閔申鎬	신축	1901
27	현판	賢宇重修及典祀所刱建記	金煥豐	경오	1930
28	현판	講堂重刱記	金先生6代孫旼 玟		1828
29	현판	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金麟基	을사	1965
30	현판	絃歌樓重修記	高元勳	병자	1936
31	현판	武城書院絃歌樓記	金奎弘	신묘	1891
32	현판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鄭寬永	계묘	1903
33	현판	武城書院絃歌樓刱建記	閔正植	신묘	1891



연번	분류	제 목	저자	연도	서기력
34	현판	武城書院院誌開刊記	井邑縣監奇亮衍	갑신	1884
35	현판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朴海彦		1834
36	현판	기문	後學宋興燮	정사	1977
37	현판	金榮得讚揚文		단기4327	1994
38	주련	揖讓進退杏壇遺教			
39	주련	月朔參拜享禮兩丁			
40	주련	春秋講磨經義四子			
41	주련	文藝時習詩書禮樂			
42	주련	德業日新孝悌忠和			
43	주련	勸規文恤藍田故約			
44	주련	士林首善			
45	주련	聖朝額恩			
46	주련	淵源追溯洙泗濂閩			
47	주련	依仁游藝德業日新			
48	주련	規模已宏心身家國			
49	주련	愼思篤行倫理自明			
50	주련	萬國罔知定			
51	주련	家家久泰平			
52	주련	承帝忘形處			
53	주련	彝華永弗明			
54	금석	武城書院廟庭碑	金東柱		
55	금석	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56	금석	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記	金麟基	기유	1969
57	금석	武城書院重修紀念碑	金麟基	단기4301	1968
58	금석	丙午倡義紀蹟碑	金成淵	임신	1992
59	금석	士人金麟基不忘碑	金煥珏	기사	
60	금석	領相李公最應不忘碑			
61	금석	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金煥豐	정사	1917
62	금석	前議官李慶熙不忘碑	金煥豐	을축	1925
63	금석	前參奉朱燦馨紀功碑	李炳觀	경오	
64	금석	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金宗漢	정묘	
65	금석	通政大夫前秘書監丞申瑬熙不忘碑	金煥豐		
66	금석	縣監徐侯灝淳不忘碑			
67	금석	縣監李侯定植不忘碑			
68	현판	重修記			
69	현판	院宇重修記	金玟	임진	
70	기타	院宇重修上樑文			
71	현판	講修齋重修記	김영조	聖上25정해	
72	현판	絃歌樓上樑			
73	기타	流觴臺重修記	조항진	무오	

■ 현판·금석 규격

연번	분류	제 목	저자	규격(가로×세로/높이×두께cm)	
				전체규격	바탕판/비신
1	편액	武城書院		102×60.5	91×46
2	편액	泰山祠	黃煜	181×50	174×45
3	편액	講修齋		63.3×25.5	57.3×20.3
4	편액	絃歌樓	孫秉浩	147×50	141×44
5	현판	武城書院記	金麟基	79.5×30.5	71.5×22.5
6	현판	武城書院記	金思謙	82×24	76×19
7	현판	武城書院記	金直述	89×25	
8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秉述	93×26.2	
9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守尹秉	120×30.5	
10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李在宇	144×45	130×37
11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宋持灝	88×37	
12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煥一	103×38	93×28
13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宋程淳	83.8×31	
14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光欽	88.3×34.3	
15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丙欽	91×34	
16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尹濟翼	106.5×32.5	
17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永朝	89.8×32.6	
18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宋鍾壽	92.8×35	
19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權直相	102×34	96×28
20	현판	武城書院慕賢記	柳源模	84×33	75×27
21	현판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金稷欽	96.5×33.5	
22	현판	武城書院院址復舊記	金煥豐	115×42	101×35
23	현판	武城書院椅盤重修記	金澤	104.9×34.5	98.9×31.5
24	현판	武城書院墻垣重修記	金煥豐	95×41	86×37.5
25	현판	武城書院祭器改修記	金麟基	100×38.5	92×34.5
26	현판	武城書院賢宇重修記	閔申鎬	99.5×33.5	
27	현판	賢宇重修及典祀所廨建記	金煥豐	104×39	94×34
28	현판	講堂重廨記	金玟	89.8×34.5	85.8×32.5
29	현판	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金麟基	85×36	78×30
30	현판	絃歌樓重修記	高元勳	142×41	137×32.2
31	현판	武城書院絃歌樓記	金奎弘	122×31	
32	현판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鄭寬永	120×50.5	110×42
33	현판	武城書院絃歌樓廨建記	閔正植	99×39.5	
34	현판	武城書院院誌開刊記	奇亮衍	77.5×30.5	
35	현판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序	朴海彦	94.3×38.3	
36	현판	記文	宋興燮	89×38	
37	현판	金榮得讚揚文		86×41	78×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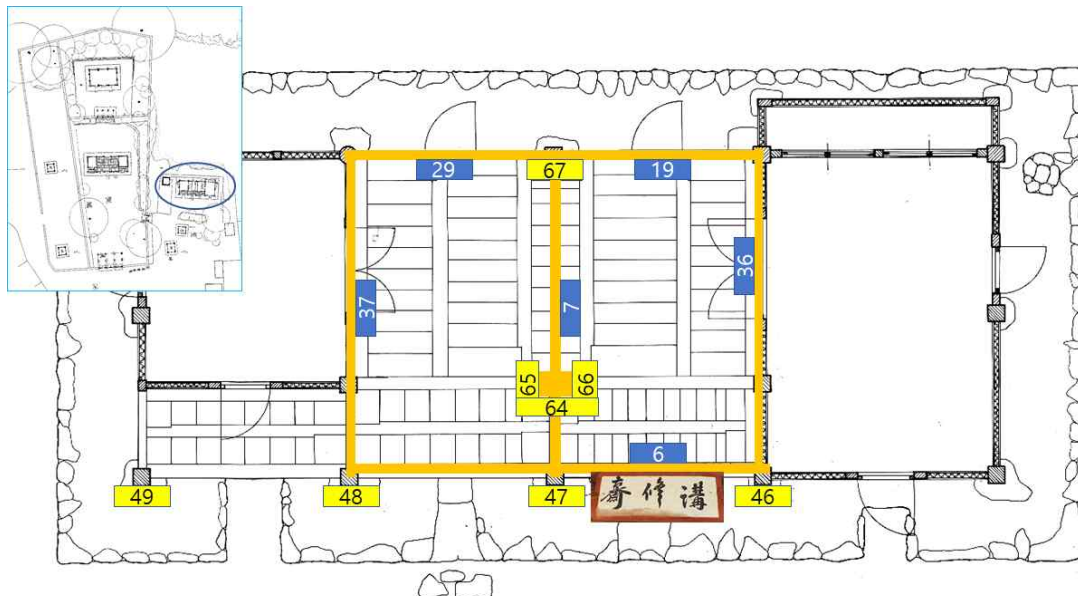


연번	분류	제 목	저자	규격(가로×세로/높이×두께cm)	
				전체규격	바탕판/비신
38	주련	揖讓進退杏壇遺教		17×140.5	
39	주련	月朔參拜享禮南丁		17×140.5	
40	주련	春秋講磨經義四子		17×140.5	
41	주련	文藝時習詩書禮樂		17×140.5	
42	주련	德業日新孝悌忠和		17×140.5	
43	주련	勸規文恤藍田故約		17×140.5	
44	주련	士林首善		18×115	
45	주련	聖朝額恩		18×115	
46	주련	淵源追溯洙泗濂閩		17×141	
47	주련	依仁游藝德業日新		17×141	
48	주련	規模已宏心身家國		17×141	
49	주련	愼思篤行倫理自明		17×141	
50	주련	萬國罔知定		16×88	
51	주련	家家久泰平		16×88	
52	주련	承帝忘形處		16×88	
53	주련	犇華永弗明		16×88	
54	금석	武城書院廟庭碑	金東柱	78×183×56	45×128×20
55	금석	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75×159×44	37×103×12.5
56	금석	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記	金麟基	77×213×52	46×140×22
57	금석	武城書院重修紀念碑	金麟基	88×207×48	47.3×124×17.8
58	금석	丙午倡義紀蹟碑	金成淵	146×331×75	98×182×36
59	금석	士人金麟基不忘碑	金煥珏	64×180×43.5	44×116.5×17
60	금석	領相李公最應不忘碑		69×155×39	39×120×20.5
61	금석	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金煥豐	80×147×45	46×120×11
62	금석	前議官李慶熙不忘碑	金煥豐	67×160×44	36×100×12.5
63	금석	前參奉朱燦馨紀功碑	李炳觀	64×181×44	40×121×18.5
64	금석	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金宗漢	81×190×52	46×124×18
65	금석	通政大夫前秘書監丞申瑢熙不忘碑	金煥豐	60×142×50.3	45×116×18
66	금석	縣監徐侯灝淳不忘碑		58×158×53	30×130×16
67	금석	縣監李侯定植不忘碑		68×161×48	39×124×20
68	현판	重修記			
69	현판	院宇重修記	金玟		
70	기타	院宇重修上樑文			
71	현판	講修齋重修記	김영조		
72	현판	絃歌樓上樑			
73	기타	유상대重修記	조항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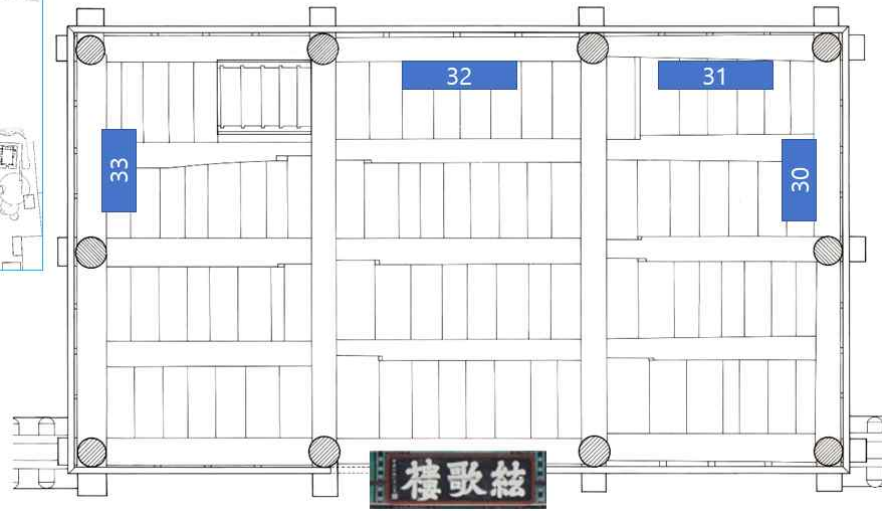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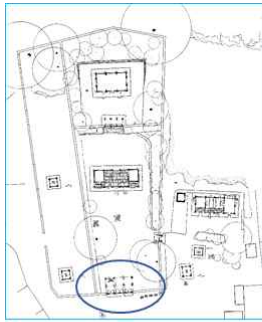
■ 무성서원 현판·금석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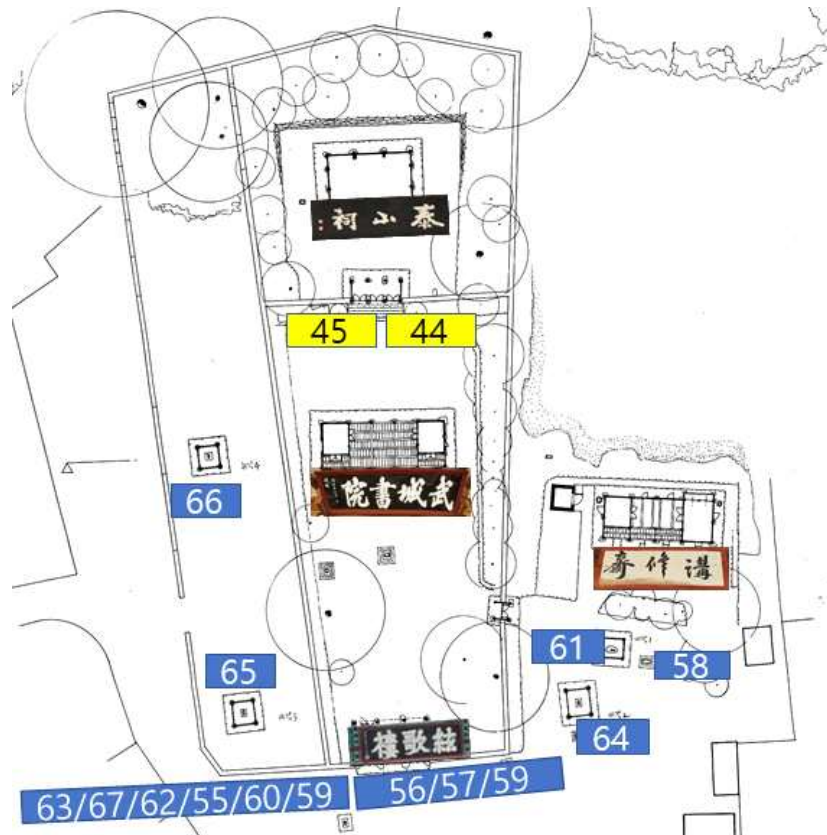
무성서원 강당



무성서원 강수재



무성서원 현가루



무성서원 금석문

무성서원 현판 번역 예시

1. 무성서원(武城書院) 102×60.5(91×46)cm



2. 태산사(泰山祠) _ 181×50(174×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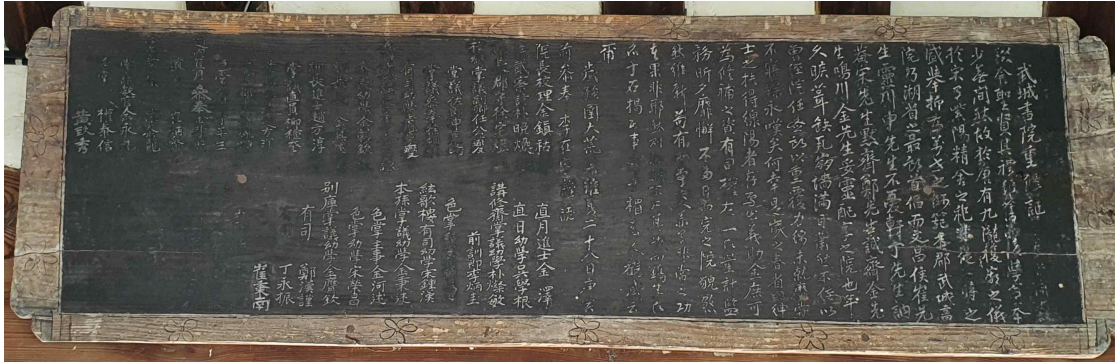
3. 강수재(講修齋) _ 63.3×25.5(57.3×20.3)cm



4. 현가루(絃歌樓) _ 147×50(141×44)cm



5.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이재우(李在宇) 지음,
144×45(130×37)cm



성현(聖賢)에게 제사 지내는 예법이 오래되어 후학들이 높이고 떠받들에 조금도 흠이 없었다. 그러므로 당(唐)나라에 구룡현(九隴縣)에 복묘(複廟)하는 의식이 있었고,¹⁾ 송(宋)나라에 자양정사(紫陽精舍)에서 지내는 제사가 있었으니, 다만 한때의 성대한 일이 아니라 만세의 본보기가 되었다. 본 순창군의 무성서원(武城書院)은 바로 호성(湖省 호남)에 제일 먼저 세워진 곳으로, 문창후(文昌侯) 최 선생(崔先生 최치원(崔致遠))과 영천(靈川) 신 선생(申先生 신잠(申潛)), 불우헌(不憂軒) 정 선생(丁先生 정극인(丁克仁)), 놀암(訥庵) 송 선생(宋先生 송세림(宋世琳)), 묵재(默齋) 정 선생(鄭先生 정언충(鄭彦忠)), 성재(誠齋) 김 선생(金先生 김약묵(金若默)), 명천(鳴川) 김 선생(金先生 김관(金灌))의 위패를 배향한 서원이다.

오랜 세월에도 수리하지 못해 기와가 부서지고 담장이 무너져서 바라보는 눈길 가득히 쓸쓸해 하였다. 변변치 못한 내가 일찍이 서원의 직임을 맡았기에 중수(重修)하려고 도모했지만, 힘이 실날같아 이루지 못하여 자나 깨나 길이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올해 봄에 도내의 선비 중 한 가닥의 양기(陽氣, 儒道)을 부지한 자가 있어 의연금을 내어 거의 수리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고, 유사(有司) 권재일(權在一) 씨가 공역을 헤아리고 감독하여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힘쓴 결과 오랜 시일을 들이지 않고 완성되어 서원의 모습이 환히 새로워졌으니, 진실로 비상한 사람이 있다면 또한 비상한 공로가 있으니, 과연 잘못된

1) 복묘(複廟)는 지붕을 이중으로 설계한 사당을 말하는데, 정현(鄭玄)은 '중옥(重屋)'이라고 하였다. 《禮記 明堂位》 여기에서는 당나라 때 팽주(彭州) 구룡현(九隴縣) 공자묘(孔子廟)를 가리킨다. 당나라 왕발(王勃)이 〈팽주구룡현공자묘당비(彭州九隴縣孔子廟堂碑)〉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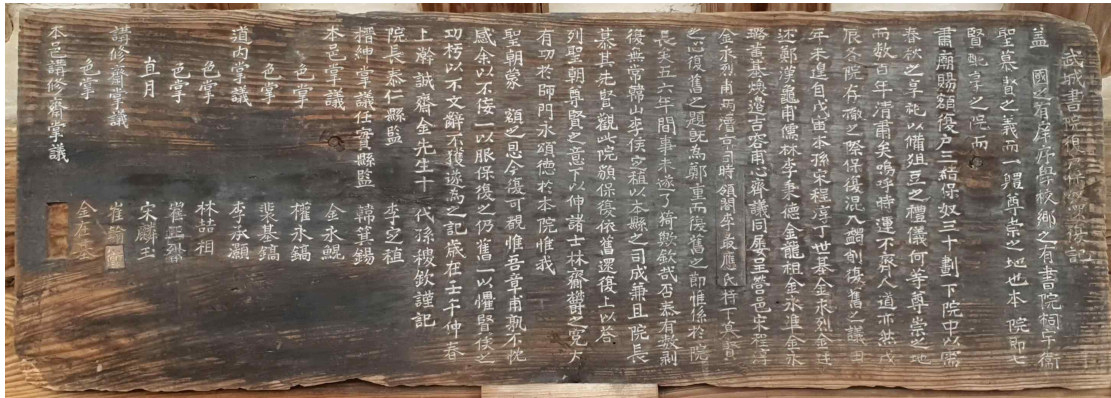
일이겠는가? 그렇다면 장차 그 공로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 성명(姓名)을
빗돌에 새기고 그 사실을 문미(門楣)에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보고 느끼게 한다.

정사년(1917년) 여름 28일 경인일(庚寅日)에 전 참봉(前參奉) 청안(淸安) 이재우
(李在宇)는 삼가 짓다.

원장(院長) 교리(校理)		김진호(金鎭祐)
원이(院貳) 찰방(察訪)		박만환(朴晩煥)
강장(講長) 군수(郡守)		서택환(徐宅煥)
진신 장의(摺紳掌議)	부경(副卿)	임공기(任公夔)
장의 좌랑(佐郎)		신□□(申□□)
장의 참봉(參奉)		서상□(徐相□)
유사(有司)	유학(幼學)	노□섭(盧□燮)
□□□□□□□□		김□□(金□□)
□장(□長)	유학	김창흠(金彰欽)
훈장(訓長)		김기술(金箕述)
훈장	진사(進士)	조방순(趙方淳)
장의	직원(直員)	유종규(柳種奎)
장의	□□(□□)	□방□(□方□)
색장(色掌)	□□(□□)	□□□(□□□)
색장	□□(□□)	□평삼(□平三)
도내 직월(道內直月)	참봉	김두희(金斗熙)
직월		최병제(崔炳齊)
□□장의(□□掌議)		권□룡(權□龍)
장의 교관(掌議敎官)		김영환(金永丸)
색장		권태신(權泰信)
		황치수(黃致秀)
직월	진사	김택(金澤)
직일(直日)	유학	오학근(吳學根)
강수재 장의(講修齋掌議)	유학	박찬민(朴燦敏)

	전훈랑(前訓郎)	이병규(李炳圭)
색장	유학(幼學)	□□□(□□□)
현가루 유사(絃歌樓有司)	유학	송종한(宋鍾漢)
본손 장의(本孫掌議)	유학	김병술(金秉述)
색장	주사(主事)	김하술(金河述)
색장	유학	송영창(宋榮昌)
별고 장의(別庫掌議)	유학	김응흠(金膺欽)
유사		정한근(鄭漢謹)
		정영진(丁永振)
		최병남(崔秉南)

6. 무성서원복호보노환복기(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_ 김직흠(金稷欽) 지
음, 96.5×33.5cm



나라에 상서(庠序)와 학교(學校)가 있고 고을에 서원과 사우가 있는 것은 성인을 보위하고 현인을 사모하는 의리로 일체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본 서원은 칠현(七賢)을 배향한 서원으로, 숙종(肅宗) 때 사액(賜額)되어 복호(復戶) 3결(結)과 보노(保奴) 30을 서원에 떼어주어 봄가을 향사(享祀)에 쓰고 제사의 예의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니, 매우 존중하였고 수백 년 동안 맑고 엄숙하였던 곳이었다.

아, 시운(時運)이 고르지 않고 인도(人道) 역시 그러하여 무진년(1868, 고종5)에 각 서원의 존속과 폐철이 결정되던 즈음에 보노와 복호가 삭감하는 대상에 뒤섞여 들어갔다. 이를 복구하자는 논의가 작년까지는 거를이 없다가, 무인년(1878, 고종15)부터 본손(本孫) 송정순(宋程淳), 정세기(丁世基), 김영렬(金永烈), 김정술(金廷述), 정한귀(鄭韓龜)와 유림(儒林) 이병덕(李秉德), 김용조(金龍祖), 김영준(金永準), 김영로(金永璐), 황기환(黃基煥), 변길용(邊吉容)이 한 마음으로 의견을 합하여 여러 차례 영읍(營畝)에 요청하는 문서를 올렸고, 송정순과 김영렬은 두 차례 경사(京司)에 아뢰었다. 당시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씨가 현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구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이 이미 정중하였지만, 복구하는 절차는 오직 원장(院長)에게 달려 있어 5~6년 사이에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 공경할지어다. 비태(胙泰)²⁾는 운수가 있고 박복(剝復)³⁾은 일정하지 않다. 한

2) 비태(否泰) : 『주역』의 <비괘(否卦)>와 <태괘(泰卦)>로, <비괘>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서 천지가 서로 막히는 상이고, <태괘>는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어서 천지가 서로 교섭하는 상이다. 만물의 성쇠와 운명의 순역(順逆)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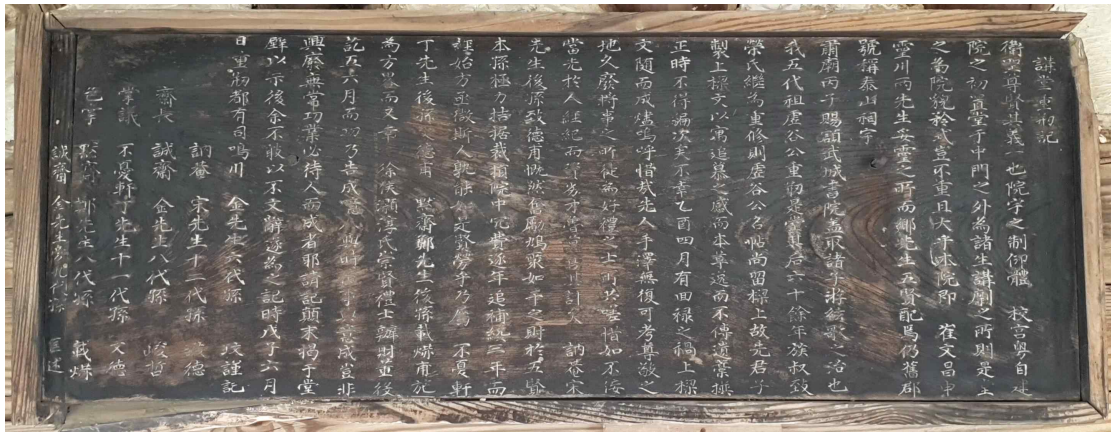
산(韓山) 이정직(李定植)이 본현(本縣)의 사성(司成)으로서 원장(院長)을 겸하여 선현(先賢)을 사모하였는데, 이 서원의 모습을 보더니 보노와 복호를 예전처럼 회복해 주어 위로는 열성조(列聖朝)에서 선현을 존중한 뜻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의 답답한 원망을 펴 수 있도록 해주어 사문(師門)에 큰 공이 있으니 본원에서 길이 덕을 칭송하리라. 우리 성조(聖朝)에서 사액을 내려준 은혜를 지금 다시 보게 되었으니, 우리 장보(章甫) 가운데 누가 감격하지 않겠는가. 내가 변변치 못하지만 한편으로 보노와 복호가 예전대로 회복된 것에 감복하고, 한편으로는 어진 사성의 공이 전해지지 못할까 두려웠다. 글을 잘 짓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침내 환복기를 쓴다.

지난 임오년 중춘(仲春) 상한(上澣)에 성재(誠齋) 김 선생(金先生)의 11대손 직흠(稷欽)이 삼가 짓다.

원장(院長)	태인 현감(泰仁縣監)	이정직(李定植)
진신장의(搢紳掌議)	임실 현감(任實縣監)	한기석(韓箕錫)
본읍(本邑)	장의	김영곤(金永鯤)
	색장(色掌)	권영호(權永鎬)
	색장	배기호(裴基鎬)
도내(道內)	장의	이승호(李承灝)
	색장	임철상(林喆相)
	색장	최정열(崔正烈)
	직월(直月)	송인옥(宋麟玉)
강수재(講修齋)	장의	최한(崔翰)
	색장	김재기(金在基)
본읍 강수재	장의	■■■

3) 박복(剝復) : 《주역》의 〈박괘(剝卦)〉와 〈복괘(復卦)〉를 가리키는데, 〈박괘〉는 음(陰)이 성하여 양(陽)이 쇠한 것을 의미하고, 〈복괘〉는 음이 극에 이르러 다시 양이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 성쇠(盛衰)와 소장(消長)이 반복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7. 강당중창기(講堂重勑記) _ 김민(金玟) 지음, 89.8×34.5(85.8×32.5)cm



성인(聖人)을 지키고 어진 이를 존중함은 뜻이 하나이다. 서원의 제도는 교궁(校宮)을 우러러 체본으로 삼는 것이다. 서원을 세운 처음에는 당(堂)을 (교궁의) 중문의 밖에 두어 제생(諸生)들의 강마(講磨)하는 장소로 삼았다. 이 당(堂)이 서원의 면모가 되었으니, 어찌 중대하지 아니한가? 본 서원은 곧 최 문창과 신 영천 두 선생의 훈령을 편히 모시는 장소로 고을 선생 5현을 배향했다. 옛 군의 이름인 [태산(泰山)]이라고 했다가 사우(祠宇)를 숙종 병자에 ['무성서원'이라고] 사액(賜額)했으니, 대개 공자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에서 현가(絃歌)의 다스림을 했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우리 5대조 허곡(虛谷) 공께서 이 집을 중창(重勑) 하시고, 그 뒤 60여 년 만에 족속인 치영 씨가 이어서 중수를 하였으니, 허곡 공의 이름은 아직도 대들보 위에 남아 있다. 그러므로 선친께서 상량문을 지어서 추모의 느낌을 부쳤지만 전해지지 아니하여, 일찍이 찬정(撰定)할 적에 편차를 할 수가 없었다. 불행하게도 을사(1785) 4월 화재를 당하여 상량문도 따라서 재가 되었다. 아! 아깝다. 선친의 손때를 다시는 상고(詳考)할 수가 없고, 존경하는 장소도 오래 폐해졌으니, 장차 일이 한갓 예의를 좋아하는 선비들의 함께 탄식하고 아까워하는 장소만 되었다. 재주 없는 나와 같은 경우는 마땅히 남보다 앞서서 강기(綱紀)를 잡아야 할 것이로되, 자본은 졸렬하고 재주는 어리석고 둔하여 그 계획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놀암 송 선생 후손 치덕(致德)이 개연하게 분발하고 독려하여 약간의 재물을 5현

의 본손들로부터 모으고, 극력 부지런히 하여 서원 가운데 잡비를 조절하고 줄여서 해마다 보충하니, 겨우 3년이 되어서야 경영 시작을 급히 하였다. 이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같이 현로(賢勞)할 수 있었겠는가!

불우헌 정(丁) 선생 후손 문덕(文德) 보(甫)와 묵재 정(鄭) 선생 후손 재혁(載赫) 보(甫)에게 부탁하여 계획을 시행토록 했는데, 다행히도 서후(徐侯) 호순(灝淳)⁴⁾께서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예우하여 대여섯 달이 되자 일이 이루어짐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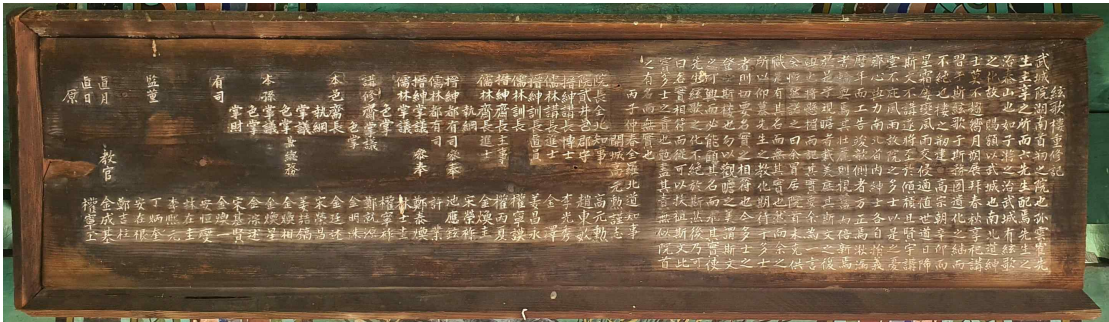
아! 사람이 때와 만나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니, 어찌 흥폐(興廢)는 무상(無常)하지만 공로와 사업은 반드시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후를 기록하여 집의 벽에 걸어 후인에게 보이기를 청하거늘, 내가 감히 글을 못한다고 사양할 수가 없어 드디어 그것을 위하여 기문을 썼다.

무자(1828) 6월 일 중창도유사(重創都有司) 명천(鳴川) 김 선생 6대손 민(旻)이 삼가 짓다.

	놀암	송 선생 12대손	구덕(口德)
재장(齋長)	성재	김 선생 8대손	준철(峻哲)
장의	불우헌	정(丁) 선생 11대손	문덕(文德)
색장	묵재	정(鄭) 선생 8대손	재혁(載赫)
	성재	김 선생 방예 9대손	광술(匡述)

4) 서호순(徐灝淳, ?-?) : 자는 치회(稹晦). 호는 우란(友蘭). 본관을 달성(達成). 순조(純祖) 병자(丙子: 1816)에 문과 급제. 태인 현감·대사헌·경상감사·이조판서 등을 역임. 시호는 숙헌(肅獻). 《朝鮮人名辭書》

8. 현가루중수기(絃歌樓重修記) _ 고원훈(高元勳) 지음,
142×41(137×32.2)cm



무성서원은 호남 지방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이다.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을 주향(主享)으로 삼고 있으며 여섯 분의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최치원 선생께서 태산군(泰山郡)을 다스림에 마치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을 다스릴 때 현가(絃歌)의 교화가 있었던 것과 같았기 때문에 ‘무성(武城)’이라 사액을 내렸다. 남도와 북도의 선비들이 우러러 뒤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달의 초하루에 배 알하였고 봄가을에 제사를 올렸다. 이 현가루에서 강습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남겨진 교화가 이어져 끊이지 않기를 도모하였다.

현가루를 창건한 건 고종(高宗) 신묘년(1891)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변하고 비바람이 번갈아 침범하였다. 때마침 세도(世道)가 날로 하강하여 사문(斯文)의 유학을 강습하지 않는 일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또한 서원의 강당도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기에, 서원의 선비들이 이 일을 근심으로 여겼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어 남도와 북도 내의 유생들이 각자 공익을 위해 물품과 돈을 내었다. 몇 년이 지나 공사를 마치자 비로소 기울어진 것들이 반듯하게 바로잡혔고 물 새는 곳들이 아름답게 되었다. 그 장대하고 아름다움이 옛날에 비해 갑절은 새로웠다. 이때 바라보는 이들이 찬미하며 우리 유교가 다시 흥기하기를 기대하였다. 장차 문미(門楣)를 걸려 할 때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여 나에게 한 마디 말을 부탁하였기에 나는 승낙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감히 서원의 우두머리를 맡고 있으나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니, 이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생의 교화를 양모하여 여러 선비들에게서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으

니, 명실상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이제 여러 선비들이 이 현가루에 올라 서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유교가 흥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필시 누대의 이름을 돌아보고 그 실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최치원 선생이 펼친 현가의 교화가 끊이질 않게 한 연후에야 비로소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합하고 우리 유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로 여러 선비들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도록 권면해야 서원 우두머리가 이름만 있지 실질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병자년(1936) 봄 전라북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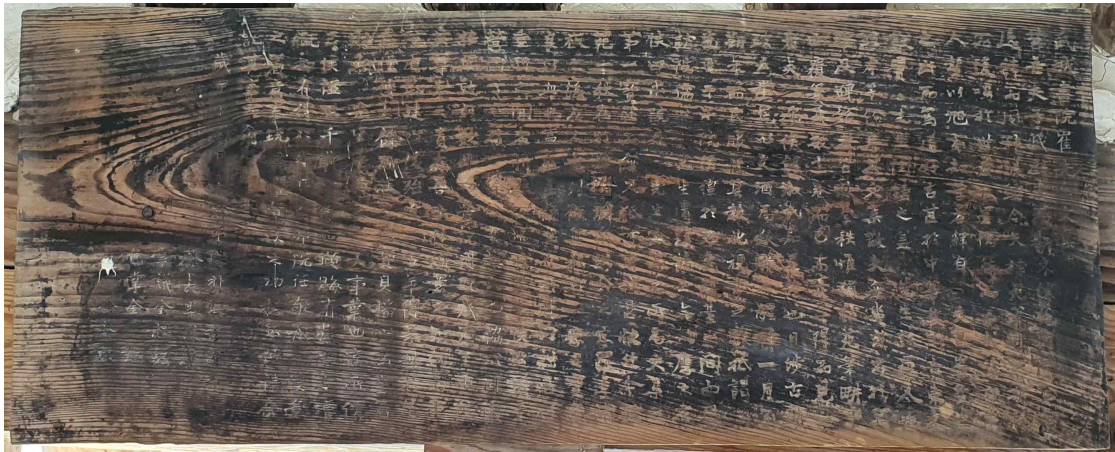
개성 고원훈 근지

원장(院長)	전북지사	고원훈(高元勳)
원이(院貳)	정읍군수	조동민(趙東敏)
진신강장(搢紳講長)	박사	이광수(李光秀)
유림강장(儒林講長)	진사	김택(金澤)
진신훈장(搢紳訓長)	직원	강창영(姜昌永)
유림훈장(儒林訓長)		권영모(權寧謨)
진신재장(搢紳齋長)	주사	권병하(權丙夏)
유림재장(儒林齋長)	진사	김환규(金煥圭)
집강(執綱)		송영조(宋榮祚)
진신도유사(搢紳都有司)	참봉	지응현(池應鉉)
유림도유사(儒林都有司)		허업(許業)
진신장의(搢紳掌議)	참봉	정태환(鄭泰煥)
유림장의(儒林掌議)		임사규(林士圭)
색장(色掌)		권영조(權寧祚)
강수재장의(講修齋掌議)		정취원(鄭就源)
색장		김명수(金明洙)
본읍재장(本邑齋長)		김정술(金廷述)
집강		송영창(宋榮昌)
장의		강철호(姜喆鎬)
색장겸총무(色掌兼總務)		김환상(金煥相)



본손장의(本孫掌議)	김환성(金煥星)
색장	김종술(金淙述)
장재(掌財)	송기현(宋基賢)
유사	김환일(金煥一)
	안항섭(安恒燮)
	임재규(林在圭)
	이희원(李熙元)
감동(監董)	정병규(丁炳奎)
	안재근(安在根)
	정길주(鄭吉柱)
직월(直月) 교관(教官)	김성기(金成基)
직일(直日)	권영옥(權寧玉)

9.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_ 박해언(朴海彦)
지음, 94.3×38.3cm



옛날 우리 부자(夫子 공자)께서 벽(壁) 속에 서적을 보관하여⁵⁾ 사문(斯文, 유학)의 끊어짐이 이어졌고, 하간(河間)이 일시(逸詩, 시경(詩經)에 수록되지 않은 시)를 보배처럼 구해⁶⁾ 풍아(風雅)가 다시 일어났다. 지금 《계원필경(桂苑筆畊)》이 거의 끊어졌다가 훗날 다시 세상에 드날렸으니, 어찌 또한 우연일 뿐이겠는가.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이(東夷)로 학문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문창공 최 선생이 나옴으로부터 도(道)를 돈독히 하고 옛것을 좋아함이 중화(中華)보다 심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동방 문헌(文獻)은 실로 선생의 도야(陶冶)에서 시작한 것이다.

선생은 신라 사람이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이전이기에 그 문집이 흩어지고 거의 사라져 혹 《기아(箕雅)》⁷⁾ 및 비명(碑銘)에 있는 것 역시 모두 전질(全秩)이 아니다. 오직 《계원필경》과 《중산복궐집(中山覆篲集)》 수 십권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역시 쉽게 얻어 볼 수가 없다.

5) 한 무제(漢武帝) 말년에 노 공왕(魯恭王) 유여(劉餘)가 궁실을 확장하던 중에 우연히 공자가 살던 옛집의 벽 속에서 《고문상서(古文尙書)》와 《예기》, 《논어》, 《효경》 등 수십 편의 서책을 얻었다는 기록이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 나온다.

6) 하간(河間)은 한 경제(漢景帝)의 셋째 아들인 하간헌왕(河間獻王) 유덕(劉德)을 가리킨다. 유학을 숭상하여 금과 비단으로 사방에서 좋은 책을 대대적으로 구입했는데 그중 《모씨시(毛氏詩)》 같은 책이 있었다.

7) 조선 후기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이 신라말에서부터 조선 현종 때까지 우리나라 여러 시인의 시를 뽑아 1688년에 간행한 시선집이다.

사또 심능숙(沈能淑) 씨가 태인현을 다스리면서 날마다 고적(古蹟)을 다니며 아랫사람들과 간격을 두지 않고 글을 짓고 술을 마시며 정사를 펼쳤는데 술이 깨어있는 사람의 정사보다 나았다. 한 달이 지나 1년이 채 되기 전에 백성들이 그 교화에 복종하였다. 정무를 돌볼 여가에 본 서원에 도착하여 선생을 배알(拜謁)하고는 석귀(石龜)와 유상대(流觴臺) 유적을 둘러보았다. 이 때 서원의 유생들이 문창공 선생의 남기신 유적에 제생들이 감응할 곳이 없다고 하자, 사또가 말하기를 “본 서원은 바로 선생을 주향(主享)으로 모신 곳이고 문집의 보창처(寶藏處)가 되는 곳인데, 상고할 만한 종이 조각조각 없으니 진실로 개탄스럽다. 지금 《계원필경》 한 질이 좌의정 연천(淵泉) 홍공(洪公, 홍석주)의 집안에 있다. 신라말에 처음 판각한 이후 중간(重刊)한 사람이 없었으니 돌아보건대 한 집안에서 보배로 여기는 것은 진실로 이유가 있다. 내가 장차 제생(諸生)들을 위해 영문(營門, 감영)에 소개하여 이 책을 중간하도록 도모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서원 유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물러났다. 사또께서 감영에 가서 의논하니, 마침 전라감사는 서유구(徐有渠)였다. 서로 협심하여 동의하고서 장인들을 불러 판각하기 시작하였다. 수개월 만에 공역을 마치자 이 책을 상자에 담아 본 서원에 내려 보냈다. 이에 높이 받드는 책무는 우리 사림(士林)의 성의가 어떠한 지에 달려 있다. 본 서원은 창건한 이후 거의 2백년 만에 절대로 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을 얻게 되었으니, 보관하여 값진 보배로 삼고 전하여 금석(金石)으로 삼는다면 이는 바로 선생을 중흥(中興)하는 일대 큰 사업이다. 참으로 이른바 세 지방관이 동시대에 함께 있으니 천년에 한번 있는 기회이고, 드러나고 묻힘에 운수(運數)가 있기에 고금(古今)에 개탄하는 소회를 갖게 되니, 아마도 오늘날을 기다리는 것인가. 원임(院任)들은 사또가 유념하여 완상(玩賞)하신 뜻을 공경히 받들고 어진 사또의 공이 사라져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여 나에게 기문(記文)을 쓰도록 청하였다.

갑오년(1834) 선달 상순에 평양(平陽) 박해언(朴海彦)이 삼가 기문을 짓다.

재장(齋長) 이준한(李俊漢)

장의(掌議) 김조현(金祖鉉)

색장(色掌) 김주(金奎)

김규훈(金奎勳)

■ 무성서원 강당 주련(38~43)_ 17×140.5cm



10. 음양진퇴행단유교(揖讓進退杏壇遺教) _ 17×140.5cm

절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니 공자의 가르침이다.

11. 월삭참배향례양정(月朔參拜享禮兩丁) _ 17×140.5cm

매월 초하루 참배하고, 제사는 두 번(2월, 8월 첫 번째 丁일) 올린다.

12. 춘추강마경의사자(春秋講磨經義回(四)子) _ 17×140.5cm

춘추를 읽고 닦으며, 경전의 뜻은 四書에 있다.

13. 문예시습시서에낙(文藝時習詩書禮樂) _ 17×140.5cm

문예를 때때로 익히니 시·서·예·악이다.

14. 덕업일신효제충화(德業日新孝悌忠和) _ 17×140.5cm

덕업을 날로 쌓으니 효도와 공경.충성과 화목이다

15. 권규교휼남전고약(勸規交恤藍田故約) _ 17×140.5cm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구휼의 향약은 남전⁸⁾의 옛 향약이구나

8) 藍田 : 여씨향약을 만든 북송의 呂大鈞, 呂大忠 사형제 고향

무성서원 금석문 번역 예시

16.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庭碑) _ 김동주(金東柱) 지음, 78×183×56cm

빗돌은 해그림자[日影]를 알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뜰의 삼분의 일이 되는 지점에 세우니 옛집의 제도가 그러할 뿐이다. 더구나 원우(院宇)는 희생을 매놓고 빙 둘러 읊하고 희생(犧牲)의 충둔(充臚)⁹⁾를 고하며, 또 그 위에 공적을 써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할 바를 알게 한다. 우리 무성서원은 사당의 오른쪽에 문창후(文昌侯) 최치원 선생을 배향한 곳이다. 선생은 신라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여 동방의 학자들 중에 누구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에 떨친 화려한 명성이 대단하였기에 죽어서도 성무(聖廡)에 배향된 것이 고려 때부터였으니 사전(祀典)이 매우 융숭했던 것은 덧붙일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와¹⁰⁾ 나라가



망해가는 조짐을 보고, 이 때문에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부끄러워하여 조정에는 오래 있지 않았고 낮은 관직이나 은자(隱者)로 배회하였다.

진성여왕(眞聖女王)이 무후(武后)의 예처럼 왕위에서 물러나니 그가 또한 오교(午橋)에 사는 노씨 이모(盧姨) 말처럼 더 이상 부끄럽게 벼슬하고자 하지 않았으니¹¹⁾, 이 얼마나 뛰어난 호걸인가!

9) 충둔(充臚) : 나라의 제사에 쓰던 살찌고 투박한 희생(犧牲)을 말한다. 제사 하루 전에 헌관(獻官)과 감찰(監察)이 주방(廚房)에 나가 소·돼지 또는 양의 충실한 정도를 검사하여 합격한 짐승만을 희생으로 쓰게 하였다.

10) 고국으로 돌아와 : 《고운집(孤雲集)》〈가승(家乘)〉에 의하면, 884년(헌강왕 10) 당 희종(唐僖宗)의 조서(詔書)를 받들고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출발하여 다음해 3월에 도착하였다.



마침내 봉황새가 훨훨 날듯이 멀리 날고 매미가 허물을 벗듯 떠돌다가 가야산에서 생을 마쳤다. 그 맑은 풍류와 빼어난 시는 천고토록 나약한 이를 서게 하고 완악한 이를 청렴하게 할 만하였다. 어떤 사람이 우화(羽化)했다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하여 근거 없는 말이니 옛 사람이 이미 묘소가 홍산(鴻山)에 있음을 변증하였다.¹²⁾ 그 평소의 나머지는 나라 차원에서는 한 가지도 대략을 볼 수 없지만 지방 고을에 베푼 것은 넓고 넓어서 그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데 여유가 있었다.¹³⁾ 호남의 태산(太山)¹⁴⁾도 한 명의 자유(子游)가 현가(弦歌)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한 곳으로, 사원(士元)이 작은 지방관인 뇌양현(耒陽縣)의 현령을 맡았던 것¹⁵⁾과 더 붙여 서로 거리가 아주 멀 뿐만이 아니니, 동향(桐鄉)¹⁶⁾의 사당으로서 비바람에 마멸되지 않은 채 우뚝하기가 영광전(靈光殿)¹⁷⁾과 같다. 우리 중종(中宗)의 성대한 시대에 영천(靈川) 신잠(申潛) 선생이 이 고을에 벼슬하여 오학당(五學堂)을 세

- 11) 최지원은 진성여왕 때 시무책을 올려 아찬(阿飡)의 벼슬을 지냈으나 실정을 거듭하던 진성여왕이 즉위 11년만에 효공왕에 왕위를 물려주자 신라 왕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기로 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측천무후가 태상황(太上皇)으로 물러난 것이나, 측천무후에게 여릉왕(廬陵王) 이현(李顯)을 태자로 삼도록 직간한 재상 적인걸(狄仁傑)이 이모 노씨에게 그 아들인 사촌 동생을 출세시켜 줄 수 있다고 하자, 이모 노씨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 그가 여황제(측천무후)를 섬기게 하지 말라 한 고사를 말한다. 《唐宋筆記注》 “仁傑啟曰：「某今為相，表弟有何欲，願悉力從其意。」姨曰：「吾止有一子，不欲令事女主。」仁傑慚而去”
- 12) 어떤 사람이……변증하였다 :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실린 〈최문창사적변증설(崔文昌事蹟辨證說)〉에, 세상 사람들이 최치원에 대해 선학(仙學)의 원조(元祖)라고 하여 선학을 수련하여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묘는 호서(湖西) 홍산현(鴻山縣) 극락사(極樂寺) 뒤에 있다고 하였고, 서유구(徐有渠)의 〈계원필경서(桂苑筆耕序)〉에는 “묘는 홍산에 있다. 혹자는 홍산은 가야의 어느 산기슭의 이름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 13) 넓고 넓어서……있었다 : 포정해우(庖丁解牛)의 고사를 인용한 말로, 정사를 다스리는 데 뛰어난 재능으로 능수능란하게 처리함을 뜻한다. 《장자(莊子)》 〈양생주(養生主)〉에 “지금 나는 칼을 잡은 지 19년이나 되고 잡은 소도 수천 마리를 헤아리는데, 칼날이 지금 솥돌에서 금방 꺼낸 것처럼 시퍼렇다. 소의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틈이 있는 공간이 있고 나의 칼날에는 두께가 없으니, 두께가 없는 것을 그 틈 사이에 밀어 넣으면 그 공간이 널찍해서 칼을 놀릴 적에 반드시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였다.
- 14) 태산(太山) : 《고운집(孤雲集)》 〈가승(家乘)〉에 의하면 886년(헌강왕12) 7월에 태산군(太山郡) 태수로 나갔다고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大山郡太守’로 되어 있으며 《동사강목》에는 ‘太山郡太守’로 되어 있고 그 주석에 ‘泰仁’으로 되어 있는데, ‘태산’은 충남 홍산(鴻山)의 옛 이름이며 ‘태산’은 전북 태인(泰仁)의 옛 이름으로, 현재의 전북 정읍시 칠보면 일대에 해당한다.
- 15) 사원(士元)이……것 : 사원은 후한(後漢) 때 유비(劉備)를 섬긴 방통(龐統)의 자(字)로, 촉의 책사(策士)로 유명한 인물이다. 유비는 그의 재능보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여 방통을 뇌양현(耒陽縣)의 현령으로 보내버렸는데, 장비가 뇌양현을 갔다가 방통의 재능을 알아보고 유비에게 천거하여 군사 중랑장(軍師中郎將)이 되었다.
- 16) 동향(桐鄉) : 한(漢)나라의 주읍(朱邑)이 젊었을 때 동향의 색부(耆夫)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자손이 그를 동향에 장사 지내자 백성들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든 일이 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일반적으로 고을 수령이 되어 은혜를 베푼 고을을 말한다. 《漢書 卷89 循吏傳 朱邑》
- 17) 영광전(靈光殿) :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 있는 건물이나 인물을 상징한다. 한(漢)나라 경제(景帝)의 아들인 공왕(恭王)이 산동성 곡부(曲阜)에 건립한 궁전으로, 후한(後漢) 왕연수(王延壽)의 글에 “서경의 미망궁과 건장궁으로부터 모든 궁전이 파괴되어 허물어졌지만, 영광전만은 우뚝 홀로 서 있었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워 선비들이 나아오도록 하였으며, 주자십훈(朱子十訓)으로 몸가짐을 하고 삼사(三事)로 문창후를 빛나게 하여 고을 사람들이 생사당을 세워 공경하였으니 석경(石慶)이 제(齊)나라의 승상이었을 때의 고사¹⁸⁾를 쓴 것이다. 계림(鷄林)의 앞이 누렇다가 푸른 앞이 중흥한¹⁹⁾ 이래 전후 700년간 지름길을 경유하지 않고 언(偃)의 집에 찾아온 적이 없는 담대멸명(澹臺滅明) 같은 자²⁰⁾가 고을에 없지 않지만, 불우현(不憂軒) 정극인(丁克仁) 선생은 국조(國朝)의 명현(名賢)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장헌왕(莊憲王) 세종(世宗)의 시호)에게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려 황폐해진 바른 길을 열고 남전향약(藍田鄉約)으로 백성들을 단속하여 고을 풍속을 크게 변화시켰다. 정언(正言) 벼슬로 치사(致仕)하고 영달을 구하지 않았으며, 고을의 자제들을 모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놀암(訥菴) 송세림(宋世琳) 선생은 더러운 임금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정어린 간언을 잊지 않았으며, 방패로 연산군(燕山君)의 해의(解衣)를 방어하였다.²¹⁾ 중종(中宗)이 나라를 안정시키자 봉장(封章)을 올려 이단을 배척하고 백성들의 병통을 진달하였으며, 학규(學規)를 거듭 고쳐 몽매한 선비들을 가르쳤다. 묵재(默齋) 정언충(鄭彦忠) 선생은 몸소 효제(孝弟)를 실천하고 의리(義理)에 깊이 몰두하여 묘하게 상수(象數)의 오묘한 이치를 꿰뚫어 세상에서 훗날의 요부(堯夫)²²⁾라고 일컬어졌다. 성재(誠齋) 김약묵(金若默) 선생은 학문은 취향을 바르게 하고 다스림은 청백(清白)을 근본으로 하여 학교를 일으켜 선비들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알게 하였다.

- 18) 석경(石慶)이……고사 : 한 무제(漢武帝) 때 석경(石慶)이 제(齊)나라의 승상(丞相)이 되었는데, 온 나라의 사람들이 그 가문의 덕행을 사모한 나머지 말하지 않아도 제나라가 매우 잘 다스려졌다. 뒤에 제나라 사람들이 석상사(石相祠)를 세워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이 생사(生祠)의 시초이다. 《史記 卷103 萬石君列傳》
- 19) 계림(鷄林)의……중흥한 :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한 시점을 말한다. 《동국통감(東國通鑑)》에 수록된 최치원의 말로, 최치원이 잠저(潛邸) 시절의 왕건(王建)에게 “계림의 앞은 누렇고 곡령의 숲은 푸르다.[鷄林黃葉, 鵲嶺靑松.]”라는 편지를 보내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을 예언하였다고 한다.
- 20) 지름길을……자 : 언(偃)은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의 이름인데, 자유가 무성(武城)의 읍재(邑宰)로 있을 적에 공자가 그에게 인물을 얻었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담대멸명(澹臺滅明)이라는 사람이 지름길로 다니지도 않고, 공사(公事)가 아니면 한 번도 언의 집에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論語 雍也》
- 21) 방패로……방어하였다 : 해의는 한(漢)나라의 장수 한신(韓信)이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덕을 칭송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나를 입혀주셨다.”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하여 임금의 특별한 은총을 뜻한다. 송세림이 1498년(연산군4)에 진사가 되고 1502년에 알성시(謁聖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것을 특별한 은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급제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상을 당하고 초상 중 병을 얻어 벼슬에 오르지 않아 갑자사화를 면하였기 때문에, 방패로 방어하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22) 요부(堯夫) : 송나라 소옹(邵雍, 1011~1077)의 자이다. 소옹은 학문이 깊고 역리(易理)에 현하여 세상만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면서 자기 집을 안락와(安樂窩)라고 하고, 자기 자호를 안락 선생(安樂先生)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생을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촉루(燭淚)라는 시를 다친 사람을 보듯 백성을 가엾게 여겼다.²³⁾ 우리 급재(及齋)의 선친인 김관(金灌)은 진실하고 충담하며 학문에 성실하고 남을 잘 인도하였으며, 흥적에 물들지 않아 정묘호란 때에 의병을 모집하였다. 명천(鳴川)선생은 학자들이 호칭한 것이다. 이와같은 분들은 진실로 모두 호걸지사이고 성인(聖人)의 무리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음이 분명하니, 숙묘(肅廟)께서 정치를 개혁한 초기에 사액(賜額)을 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고종(高宗)이 왕위를 이은 뒤에 제사를 존속하라는 별단(別單)을 내렸으니, 이는 열성조(列聖朝)의 덕 있는 이를 높이고 어짐을 닮은 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는 깊은 은혜라 할 것이다. 오늘날은 옛 덕을 보기를 마치 짐새의 독을 섞은 술처럼 보고, 명교(名敎)를 버리기를 마치 쓸모없는 변모(弁髦)처럼 보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금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오직 현인과 옛날을 보배로 여겨, 해마다 이어서 수리함으로써 더욱 새롭게 하고 유자(儒者)들이 이를 따라 감사함을 품고서 수백 년 동안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에 정실(庭實)을 진열하고 성대한 의식을 도모하는 것이 앞뒤로 많으니, 어찌 여러 선생의 유풍이 백세가 지난 뒤에 듣는 자로 하여금 공경을 일으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유학의 도가 날로 다시 미약해지는 시기에 4척의 이수(虯首)에 새기는 것은 진실로 일제 강점 36년의 캄캄한 밤을 깨뜨린 뒤 큰 서광이 비취 사람의 뱃속을 따뜻하게 한 것이다. 문에 들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예악의 교화가 남은 이곳이 부자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며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라고 했던 농담이 황홀하게 다시 들리는 것 같다. 군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은 부리기가 쉬워진다는 것이 모두 도를 배운 군자의 교화에 근본함을 알 것이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문창후께서는 우리나라에 태어나 뜻이 보통 사람과 매우 달라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여 문장과 학술이 중국에서조차 능가하는 이가 없었네. 금의환향하여 지방 수령이 되는 것도 달게 여겼건만, 돌아보건대 이 태산에 뛰어난 능력으로 작은 고을 수령을 지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고 황색 치마가 크게 길하다는 것은 점이 잘못되어 청산에 잠(簪)을 문었네.

23) 촉루(燭淚)라는……여겼다 : 김약목의 묘갈명에 의하면, 명나라 장수 조도사(趙都司)가 한양에 와서 광해군의 학정을 풍자하여 지었다는 시에 있는 “초의 눈물 떨어지는 곳에 백성의 눈물 같이 떨어지네.”라는 구절을 좌우명으로 써두었다고 한다.《俛仰集 卷4 有明朝鮮國通訓大夫楊州牧使誠齋金公墓碣銘》

영천(靈川) 신잠(申潛)이 수령이 된 것은 시대는 달라도 서로 부합하여 고을에 5학당을 지어 선비를 나아와 공자를 존모하게 하여 당시에 공덕비가 세워졌고, 생사당을 세웠으니 빠르도다.

진실하도다, 불우현은 맨 먼저 유학의 운에 응하여 포의(布衣)로서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으니 한유(韓愈)와 동운(同韻)이고,²⁴⁾ 향약을 시행하고 향음주례를 거행하니²⁵⁾ 남전(藍田)의 유풍을 들었던 것이라네.

놀암의 정성스러운 간언은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이단을 물리치며 백성의 병폐를 구제하고자 하였고, 개옥(改玉)하자 충성을 진달하였고²⁶⁾ 향약의 발문(跋文)을 써서 유생들을 계발하였네.

묵재는 효성스럽고 우애하여 모두 화락하였고 일찍 과거 공부를 그만두어 의리에 몸을 두고 고명(高明)한 데에 마음을 사색하였으니 후세의 요부(堯夫)로다.

성재는 곧고 강하며 박학(博學)과 심문(審問)을 지향하였고, 관직에 임해서는 빙벽(氷蘖)²⁷⁾과 같아 임금께 옷을 하사받았으며,²⁸⁾ 금옥군자(金玉君子)라 일컬었으니 흠양함이 이와 같았네.

명천은 가학(家學)이 있어 월봉(月峯)의 아름다움을 잘 이었으며²⁹⁾ 기쁨과 노여움을 드러내 지으니 기상은 봄바람과 같았고, 매사에 평탄하여 물처럼 넘실넘실 아름다웠도다.

생각건대 우리 무성의 7현의 명령이 감통하여 편액을 하사받고 길이 제사하니 성

24) 불교를……동운(同韻)이고 : 정극인이 1436년(세종18)에 올린 〈성균관에서 요승 행호를 베기를 청하는 소[太學請誅妖僧行乎疏]〉를 한유가 당 헌종(唐憲宗)에게 올린 〈논불골표(論佛骨表)〉에 비견하여 말한 것이다. 당시 승려 행호가 세종의 총애를 얻어 흥천사(興天寺) 주지가 되어 방자한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고, 서울에 모임을 개설한지 1년 만에 도첩(度牒)을 받고 승려가 된 이가 수만 명에 이르자, 정극인이 성균관 유생들을 거느리고 올린 상소이다.《불우현집(不憂軒集) 권2》

25) 향약을……거행하니 : 1475년(성종6)에 정극인이 마을에 향음주례를 마련하고 규약을 세워 서(序)를 지었다.《불우현집 권2 동중향음주서(洞中鄉飲酒序)》

26) 개옥(改玉)하자……진달하였고 : 개옥은 반정(反正)과 같은 말로, 여기서는 중종반정을 가리킨다. 송세림이 1516년(중종11) 능성 현령(綾城縣令)으로 재직 중 방납(防納) 폐단의 제거, 책 인쇄로 인한 과중된 잡세(雜稅) 폐지, 군액(軍額) 충당을 위한 중(僧)의 추쇄(推刷)와 절의 소각, 우전입마(郵傳立馬)의 폐단에 대한 개선 등을 내용으로 개혁안을 상소한 일을 가리킨다.

27) 빙벽(氷蘖) : 얼음과 황벽나무라로, 춥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굳게 절조를 지키며 청백하게 사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28) 관직에……하사받았으며 : 김약목이 1550년(명종5)에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부임하여 정사를 잘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조정에 알려져 명종으로부터 표리(表裏) 1습(襲)을 하사받은 일이 있다.《俛仰集 卷4 楊州牧使同州鎭兵馬節制使誠齋金公行狀》《명종실록 7년 11월 4일》

29) 명천은……이었으며 : 명천의 증조부인 한정(閑亭) 김약회(金若晦)는 퇴계 이황과 하서 김인후와 종유하였고, 조부인 시암(詩岳) 김원(金元)은 문학과 행의가 있었으며, 부친인 월봉 김대립(金大立 1550~?)은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가동(家童) 수백을 거느리고 장성에서 의거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金陵金氏四世稿》《武城書院誌 七賢事蹟》



은(聖恩)이 넓고 커서 뜰에 비석을 세우니 백세토록 찬란하게 빛나리라.

때는 병자년 사액을 받은 뒤 262년 무술 10월 상완(上浣)에 금릉(金陵) 후학(後學) 김순(金蓐)이 삼가 짓다.

의성(義城) 후학 김동주(金東柱)가 삼가 쓰다.

후학 금릉 김용기(金龍基)가 경건하게 새기다.



17. 무성서원묘정비창건의연방명록(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75×159×44cm

무성서원묘정비창건의연방명록(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전 도의원(前道議員)	임종엽(林鍾燁)	김제
원장지사(院長知事)	이하영(李夏榮)	서울
도내장의(道內掌議)	허 현(許 炫)	김제
전 면장(前面長)	유상선(兪祥先)	정읍
	이규열(李圭烈)	옥구
원이군수(院貳郡守)	양창현(梁昌鉉)	남원
전 조합장(前組合長)	강동희(姜東曦)	김제
전 읍장(前邑長)	강태희(姜泰熙)	
	황금만(黃金萬)	
도유사(都有司)	김희진(金喜鎭)	강진
전 국장(前局長)	최찬택(崔讚澤)	부산
	오연호(吳然鎬)	김제
도내장의(道內掌議)	김제근(金濟根)	
	최병식(崔炳植)	
	모귀남(牟貴南)	
도의원(道議員)	송삼섭(宋三燮)	정읍
발전소장(發電所長)	윤석홍(尹錫弘)	서울
	정영혁(丁永赫)	광주
도과장(道課長)	홍석모(洪錫模)	부안
도내색장(道內色掌)	이주천(李柱川)	
전 국장(前局長)	장영복(張永福)	서울
참의원(參議員)	정문갑(丁文甲)	광주
	김상수(金相洙)	전주
도의원 일동(道議員一同)	전북(全北)	전북



금융단 일동(金融團一同)	전북(全北)	전북
도내장익(道內掌議)	서광옥(徐光玉)	정읍
전읍장(前邑長)	장길수(張吉洙)	
부읍장(副邑長)	황이성(黃二性)	신태인
	공일권(孔一權)	정읍
도유사(都有司)	강두환(康斗煥)	제주
면장(面長)	김생기(金生基)	정읍
	김용기(金鏞基)	전주
면장(面長)	은석표(殷錫杓)	정읍
전 군수(前郡守)	강우준(康祐俊)	제주
	정영식(丁永植)	광주
	김연흠(金演欽)	정읍
사장(社長)	정영찬(丁永贊)	목포
	박양언(朴良彦)	정읍
면장(面長)	박종기(朴琮基)	
	문종영(文鍾諤)	김제
면장(面長)	유재영(劉載英)	정읍
교육감(教育監)	김용순(金容純)	고창
	김재흠(金在欽)	정읍
	송남호(宋南浩)	
	김기흥(金基興)	
면장(面長)	서병익(徐秉翊)	
면장(面長)	김성중(金聖仲)	
전 면장(前面長)	손성탁(孫聖卓)	
면장(面長)	이길용(李吉龍)	
면장(面長)	유귀남(柳貴男)	

◇

전교(典校)	김창배(金昌培)	김제
도내장익(道內掌議)	정면현(鄭冕鉉)	순천



사장(社長)	김용기(金用基)	정읍
사장(社長)	김종문(金宗汶)	전주
전교(典校)	강범희(姜凡熙)	임실
	김옥기(金玉基)	정읍
	김환진(金桓鎭)	
	안동섭(安東燮)	
원장(院長)	김성환(金聲煥)	정읍
장의(掌議)	임종기(林鍾基)	부안
사장(社長)	김헌기(金憲基)	전주
	이철영(李鐵榮)	
면의원(面議員)	김생기(金生基)	정읍
	강사원(姜士遠)	
	이승우(李承友)	
	김상기(金相基)	
향교장의(鄕校掌議)	김학형(金學瑩)	순천
	이기우(李淇雨)	임실
장의(掌議)	심원순(沈元淳)	
	서병찬(徐丙贊)	
	김옥기(金玉基)	전주
	안종숙(安鍾淑)	정읍
	김종술(金淙述)	
	김원기(金源基)	
	김환길(金煥吉)	정읍
	송태섭(宋泰燮)	
	김여술(金麗述)	
	이교면(李敎冕)	
◇		
군수(郡守)	김윤철(金允喆)	
도내장의(道內掌議)	이영춘(李永春)	부안
<u>교육감(敎育監)</u>	김남규(金南奎)	정읍

전 색장(前色掌)	권영조(權寧祚)	
	박명규(朴明奎)	
	권태정(權泰晶)	
도내장(道內掌議)	강한수(姜漢秀)	
전 색장(前色掌)	유석포(柳錫浦)	
참봉(參奉)	권영섭(權寧燮)	
	강여일(姜汝一)	
	황성옥(黃成玉)	
전 도의원(前道議員)	온영대(溫榮大)	김제
전 장의(前掌議)	배인술(裴仁述)	
	유상근(柳相根)	
전교(典校)	김재홍(金在洪)	옥구
사장(社長)	정두현(丁斗鉉)	
	김준기(金準基)	
	김원기(金元基)	김제
읍장(邑長)	최병규(崔炳奎)	
	황창용(黃昌龍)	
	최영식(崔永植)	
	박재동(朴再東)	
도내색장(道內色掌)	서재을(徐在乙)	김제
향교장의(鄉校掌議)	신석문(申錫文)	
	최동식(崔東植)	
전 장의(前掌議)	김병석(金炳皙)	
	김만엽(金萬燁)	
면장(面長)	최봉식(崔鳳植)	정읍
교육위원(教育委員)	송광섭(宋光燮)	
	오상호(吳相鎬)	
강재장의(講齋掌議)	강예민(康禮民)	제주
전 장의(前掌議)	이수진(李守珍)	
사장(社長)	강정옥(康丁玉)	



도내장 의(道內掌議)	조동규(曹東圭)	순창
전 면장(前面長)	권승학(權承鶴)	정읍
	김환석(金煥碩)	
면장(面長)	최명욱(崔明郁)	
	김상술(金相述)	
사장(社長)	김창호(金昌鎬)	
전 면장(前面長)	오제호(吳濟鎬)	
	김정술(金正述)	
	이후연(李厚淵)	
	김중삼(金重三)	
	송영근(宋榮根)	
	송경종(宋京鍾)	강진
	김양기(金亮基)	정읍
전 면장(前面長)	김이화(金已化)	
	정호현(丁虎鉉)	광주
전 장 의(前掌議)	하인권(河仁權)	정읍
사장(社長)	김병길(金炳吉)	
전 면장(前面長)	김봉규(金琤奎)	
	김요정(金堯政)	
면 의 장(面議長)	김 곤(金 坤)	
면 의 원(面議員)	유정렬(柳貞烈)	
	송기호(宋箕浩)	
면 의 원(面議員)	민병한(閔丙漢)	정읍
	김해원(金海源)	
	이동섭(李東燮)	
	서정규(徐廷珪)	김제
	오해옥(吳海玉)	
	이정관(李廷寬)	
향교장 의(鄕校掌議)	황희경(黃熙炅)	
	김영환(金永桓)	정읍

	정병호(鄭炳鎬)	
	송봉섭(宋鳳燮)	
	강봉석(姜鳳石)	
◇		
지사(知事)	송호림(宋虎林)	광주
지사(知事)	김 인(金 仁)	전주
군수(郡守)	김성렬(金成烈)	장성
사장(社長)	신현두(申鉉斗)	광주
전 면의원(前面議員)	송영동(宋榮東)	정읍
전 면의원(前面議員)	김환옥(金煥玉)	
전 면의원(前面議員)	박오룡(朴五龍)	
면의원(面議員)	김동기(金東基)	
	김권중(金權中)	
전 장의(前掌議)	권진길(權鎭吉)	
	박병일(朴秉一)	
전 면의원(前面議員)	은희철(殷熙澈)	
집강(執綱)	권영옥(權寧玉)	
본원장의(本院掌議)	김용기(金龍基)	
본손장의(本孫掌議)	송기현(宋基玄)	
본손색장(本孫色掌)	정옥성(丁玉聲)	
	김인기(金麟基)	정읍
본손유사(本孫有司)	김종기(金淙基)	
	정동수(丁東秀)	
	김수환(金洙煥)	
	김환택(金煥澤)	정읍
	성봉용(成奉龍)	
	우제국(禹濟國)	
	김형기(金炯基)	정읍
	송영석(宋榮碩)	
	정용수(丁龍秀)	



김사술(金仕述)

정성술(鄭聖述)

김홍기(金洪基)

김환준(金煥峻)

강정희(姜正熙)

안재권(安在權)

신축년 5월 상순 총무 연안후인(延安后人) 전 참봉(前參奉) 색장(色掌) 김종원金鍾元이 삼가 세우다.

18. 전 의관 이경희 불망비(前議官李慶熙不忘碑) _ 김환풍(金煥豐) 지음, 67×160×44cm

【현인을 존중한 그 뜻 한 조각 비석에 담았으니, 서원의 모습을 중창한 것 어찌 잊을 수 있으리오.】

불망비 기(不忘碑記)

사업은 옛사람이 이른바 삼불후(三不朽) 가운데 한 가지이니, 비석을 세워 기록하되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으려는 뜻이다. 본 서원은 도원(道院)이기에 모든 수용(需用)이 다른 곳에 비해 크고 많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 의관 이경희(李慶熙)는 경주(慶州)의 명망 있는 집안 사람인데, 은혜를 잘 베풀기로 향리에서 칭송을 받았다. 이 서원을 중수하는 일에 즈음하여 남보다 더 많은 기금을 출연하였고 토지를 기부하여 봄가을의 제향 비용과 초하루와 보름의 공궤(供饋)가 영구히 이어지기를 도모하였으니, 서원이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사람의 이 공적에 대한 칭송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 어찌 돌에 새길 것이 있겠는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니 잊지 않으려는 뜻에 비석이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나에게 글을 부탁하였기에 대강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김병용(金炳庸), 김인기(金麟基), 최상식(崔庠植), 김성기(金成基), 송영조(宋榮祚), 김용원(金龍源)이다.



을축년 중춘(仲春) 상한(上澣)에 도강(道康) 김환풍(金煥豐)이 짓고, 진사(進士) 여흥(驪興) 민영석(閔泳碩)이 쓰다.

을축년 중춘(仲春) 상한(上澣)에 도강(道康) 김환풍(金煥豐)이 짓고, 진사(進士) 여흥(驪興) 민영석(閔泳碩)이 쓰다.

승록대부(崇祿大夫) 전(前)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 쓰다.



무성서원 현판 원문 예시

1. 무성서원(武城書院) _ 편액

2. 태산사(泰山祠) _ 편액

3. 강수재(講修齋) _ 편액

4. 현가루(絃歌樓) _ 편액

5.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院案之任員付銜其規舊
 矣上自公伯至各郡守宰
 及紳士曰誰曰某曾有所
 經歷而非其人則難矣嘉
 善崔庸植與其族弟錦南
 廷植系出全州故議政府
 左贊成諱有慶號竹亭諡
 平度公後裔也自湖西寓
 居於金堤而其清德雅操
 足以師世範俗今年秋遂
 公議付搢紳掌議之任矣
 居無何兩氏鼎來四隣咸
 集茶罷見院貌之蕭索聞

約嘗之薄略慨然興歎出
 金爲拮据小補之資物輕
 義重見今滔滔者天下過
 泗水而不見孔子者多而
 惟其慕賢之心不以身老
 道遠爲苦既審且助苟非
 名門賢仍豈庸若是慕義
 覲德將欲不尸其功故錄
 其名于楣爲人觀感云爾
 柔兆執徐冬十月日
 講長延安金思謙謹識
 直月康津金直述

6.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衛道而尊賢崇德而報功寔繼往
 聖開來學其義一也本院卽文
 昌公崔先生靈川申先生主享之
 道院也配以鄉之五賢五賢乃不憂軒
 丁先生訥菴宋先生默齋鄭先生誠
 齋金先生鳴川金先生也
 肅廟丙子賜額武城一倣子游文治
 故事戊辰撤院之後院貌凋殘春秋
 享祀之禮朔望焚香之節萬無其
 理而惟道內掌色出義出力僅僅成
 樣者況至于今儒道百六之運極矣
 何幸道內搢紳掌議從二品金昌喜
 慨然乎瞿然乎院貌之凋殘出義



助金以補萬一士烝賴而不墜其非
補世教之狀德者烏能如是乎
於是士論齊發請誌其功於院壁
以俟夫後來僉君子象德者咸曰
可而因揭其顛末云爾是歲丙午
春三月

日 鳴川先生九代孫 金秉述謹記

摺紳講長 金溝郡守 閔泳晉

執綱 井邑郡守 宋鍾民

掌議 從二品 金昌喜

儒林掌議 柳種奎

色掌 金善述

道內訓長 進士 柳然浩

摺紳掌議 參奉 柳錫根

參奉 □□南

儒林掌議 崔秉□

李世憲

道內掌議 □□學

色掌 金□權

講修齋掌議 吳鍾大

金琦善

文福淳

道內色掌 孔興杓

柳□□

直月 崔庠植

7. 무성서원복호보노환복기(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盖國之有庠序學校鄉之有書院祠宇衛
聖慕賢之義而一體尊崇之地也本院卽七
賢配享之院而

肅廟賜額復戶三結保奴三十劃下院中以需
春秋之享祀以備俎豆之禮儀何等尊崇之地
而數百年清肅矣嗚呼時運不齊人道亦然戊
辰各院存撤之際保復混入鐫削復舊之議田
年未遑自戊寅本孫宋程淳丁世基金永烈金廷
述鄭韓龜甫儒林李秉德金龍祖金永準金永
璐黃基煥邊古容甫心齊議同屢呈營邑宋程淳
金永烈甫兩瀆京司時領閣李最應氏持下慕賢
之心復舊之題既爲鄭重而復舊之節惟係於院
長矣五六年間事未遂了猗歟欽哉否泰有數剝
復無常韓山李侯定植以本縣之司成兼且院長
慕其先賢觀此院貌保復依舊還復上以答
列聖朝尊賢之意下以伸諸士林齎鬱之冤大有
功於師門永頌德於本院惟我

聖朝蒙額之恩今復可觀惟吾章甫孰不忱
感余以不佞一以服保復之仍舊一以懼賢侯之
功朽以不文辭不獲遂爲之記歲在壬午仲春
上澣誠齋金先生十代孫稷欽謹記

院長 泰仁縣監 李定植

搢紳掌議 任實縣監 韓箕錫

本邑掌議 金永鯤

色掌 權永鎬

色掌 裴基鎬

道內掌議 李承灝



色掌	林喆相
色掌	崔正烈
直月	宋麟玉
講修齋掌議	崔翰■
色掌	金在基
本邑講修齋掌議 ■■■	

8. 강당중창기(講堂重勅記)

衛聖尊賢其義一也院宇之制仰體校宮粵自建
院之初置堂于中門之外爲諸生講劇之所則是堂
之爲院貌矜式豈不重且大乎本院則崔文昌申
靈川兩先生妥靈之所而鄉先生五賢配焉仍舊郡
號稱泰山祠宇

肅廟丙子賜額武城書院蓋取諸子游絃歌之治也
我五代祖虛谷公重勅是堂其后六十餘年族叔致
榮氏繼爲重修則虛谷公名帖尙留樑上故先君子
製上樑文以寓追慕之感而本草■而不傳遺常撰
正時不得編次矣不幸乙酉四月有回祿之禍上樑
文隨而成燼嗚呼惜哉先人手澤無復可考尊敬之
地久廢將事之所徒爲好禮之士所共嗟惜如不佞
當先於人綱紀而資劣才魯莫售其許矣訥庵宋
先生後孫致德慨然奮勵鳩聚如干之財於五賢
本孫極力拮据裁損院中冗費逐年追補纔三年而
經始方亟微斯人敦能如是賢勞乎屬不憂軒
丁先生後孫文德甫默齋鄭先生後孫載赫甫施

爲方略而又幸徐侯灝淳崇賢禮士辦財董役
訖五六月而功乃告成噫人與時值事與意成豈非
興廢無常功業必待人而成者耶請記顛末揭于堂
壁以示後余不敢以不文辭遂爲之記戊子六月
日重勑都有司鳴川金先生六代孫 玟謹記

訥庵	宋先生十二代孫	致德
齋長	誠齋 金先生八代孫	峻哲
掌議	不憂軒丁先生十一代孫	文德
色掌	默齋鄭先生八代孫	載赫
	誠齋金先生旁九代孫	匡述

9. 현가루중수기(絃歌樓重修記)

武城書院湖南首勑之院也孤雲崔先生
主享之所而六先生配焉先生之
治泰山也與子游之治武城有絃歌
之化故賜額以武城也南北道紳
士莫不趨嚮月朔展拜春秋享祀講
習于斯絃歌于斯務圖遺化之繼而
不絕也樓之勑建高宗朝辛卯而
星霜屢變風雨交侵適值世道日降
斯文不講遂將至於傾頽且賢宇講
堂不庇風雨故院之多士以是之憂
齊心與力南北省內紳士各自捐義
歷年而工告竣欹側者方正焉湫漏
者輪奐焉其壯麗則視舊而倍新焉
於是乎視瞻者載美庶其斯文之復



興也將懸楣而記其實要余爲一言
余(慨)然諾之曰余冒居院首未克供
識是有其名而無其實也然而余之
所以仰慕先生之教化期行于多士
者則切要名實之上符也今多士之
登斯樓也勿以觀瞻之美謂斯文
之可興而必能顧其名而求其實使
先生絃歌之化不絕於斯然後乃可
曰名實相符而從可以扶植斯文比
實多士之責也勉盡其責無似院首
之有名而無實也

丙子仲春全羅北道知事

開城高元勳謹識

院長	全北知事	高元勳
院貳	井邑郡守	趙東敏
搢紳講長	博士	李光秀
儒林講長	進士	金澤
搢紳訓長	直員	姜昌永
儒林訓長		權寧謨
搢紳齋長	主事	權丙夏
儒林齋長	進士	金煥圭
執綱		宋榮祚
搢紳都有司	參奉	池應鉉
儒林都有司		許業
搢紳掌議	參奉	鄭泰煥
儒林掌議		林士圭
色掌		權寧祚
講修齋掌議		鄭就源
色掌		金明洙

本邑齋長	金廷述
執綱	宋榮昌
掌議	姜喆鎬
色掌 兼 總務	金煥相
本孫掌議	金煥星
色掌	金淙述
掌財	宋基賢
有司	金煥一
	安恒燮
	林在圭
	李熙元
監董	丁炳奎
	安在根
	鄭吉柱
直月 教官	金成基
直日	權寧玉

10. 무성서원현가루기(武城書院絃歌樓記)

謹嘗觀孔夫子妥靈之殿曰大成樓曰萬化者蓋取諸夫子道德教化之意也然則今按湖南省泰仁縣有文昌公崔先生侑享之院院曰武城樓曰絃歌者亦無以乎先生之文章北學于中夏道學倡始乎東邦爲一世宗師在羅朝出宰是縣卽其時泰山郡以昔子游之治爲治民俗丕變儒化蔚興其歿也郡人立祠寓慕歷麗代入我中廟朝靈川申公繼治若蕭曹之遵束冊設五學教明十訓合享是祠逮夫肅廟朝祠爲院且鄉之賢有若不憂軒丁公訥庵宋公默齋鄭公誠齋金公鳴川金公皆道以相符禮以追

配道內章甫籲請院額蒙賜武城武城云者卽賁主享先生倣古子游武城絃歌之治而然然則院之額號樓之扁揭良由是也瞻拜于斯院則先生清高之象肅然復臨於神座之後詠歌于斯樓則先生文治之聲宛然復聽於講習之餘者實是萬古英風百代遺韻而多士之振作興感者尙如何哉噫余自在闔都欽聞而向慕矣去己丑夏宣上恩德來旬是省名參是院之任竊欲拜謁奉審觀禮儀之秩秩文物之彬彬而未果者責擔鎮藩身絆堆堞但心常鬱鬱咨嘆而已一日院儒黃基煥金直述權鍾林數君來言院貌之蕭條門樓之顛廢尙未重建職由事巨力綿方營經始爰謀鳩聚則如非邑扶他無方略蓋是院卽一道多士之所依歸而崇奉則至修舉之地當有樂赴之義況今筆巖院褒忠祠已有例扶豈於此院而獨無其尙乎余聽之旣揆以事體允合於衛賢道服衆心之固然乃排列邑俾付郢匠役未就緒余以瓜期遽當遞歸雖然遵塗之難廢旣張之弩難弛凡事之成非成於成之日已成於成之前則斯樓之成原始要終方始未成其終有成也刺史知其成而歸之儒林落其成而宴之洋然復誦其絃歌之聲藹然復遊於遺化之中矣儒林庶肯爲刺史之功刺史不自以爲功惟以爲儒林之幸其幸也莫非先生之培養來陶鑄出之功故乃敢言之遂爲之頌

辛卯仲春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兼奎章閣直提

學清風金奎弘³⁰⁾書

摺紳都有司	尹濟翼	潭陽府使
	李憲翼	寶城郡守
	李時宇	沃溝縣監
發文都有司	黃基煥	
	金直述	
	崔鍾林	
儒林有司	金思駿	
	金永琳	
	金堯昇	



成造有司	金寬欽
	權直圭
	禹在鎬
文簿有司	白泰洙
	梁 億
本孫有司	金光欽
	金慶述

11.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昔吾夫子藏壁書而斯文繼絕河間寶得
逸詩而風雅復興今夫桂苑筆畊之幾絕
而後鳴於世者亦豈偶然而已哉噫我東
人肇以旭夷知學者鮮自文昌崔先生
之出而篤道好古甚於中華然則吾東文
獻實先生陶鑄之蓋先生新羅人也
距今千餘年其文集散失無幾或當於箕
雅及碑銘者皆非全秩惟獨桂苑筆畊中
山覆簣集數十卷而已而亦無得而見之
者矣沈侯能淑氏知是郡也日涉古蹟
破去崖岸以文酒爲政勝人醒時一月不
期年而民服從其教化視事之暇抵謁
先生于本院彷徨於石龜觴臺之間而因
諸院儒以先生遺蹟諸生無以應之者

30) 김규홍(金奎弘)... 1845-?. 자는 파일(학일(華一)). 본관은 청풍(淸風). 1889년 전라도 관찰사 의정부 참정 등을 지냈다. 《韓國人名大事典》

侯曰本院乃先生主享之所爲文集之
第一寶莊而無尺紙可考誠甚忱然今桂
苑一秩在於左揆淵泉洪公之家羅季開
板之後無人重刊顧其私於一家之寶者
良以此也盖將爲諸生介於營門謀所以
重刊之聞者忻然而退於是侯往議于
營門□□乃徐公有渠氏也協心同議
招匠就刻數月功告訖冊卽成匣下本院
其尊奉之責在吾士林誠意之如何而本
院自刱建以後殆二百年得是冊於絕
無保傳之餘而莊之爲寶貝播以爲金石
則此先生中興之一大事業也眞所謂
三侯併世千載一會而顯晦有數古今增
慨抑有待於今日也耶院任敬承侯意
之着意奉玩且懼賢侯之功朽不傳請余
記其事云爾

歲甲午臈月上澣平陽朴海彥謹記

齋長 李俊漢

掌議 金祖鉉

色掌 金 黈

金奎勳

무성서원 금석문 원문 예시

12.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庭碑)

碑所以識日影也必樹之三分庭之一者古屋制然爾況院宇於以繫牲而圓揖而告充
膺且被功實於其上而使讀者知有所敬也緬惟我武城書院享右以文昌侯崔先生致
遠先生羅產也幼而北學於中國非直東方學者未能或之先也而華聞鳴天下藉甚沒
而躋聖廡者降自勝國祀典極隆無容贅舌其在錦還也見國家危亡兆矣是以恥道不
行不久於朝低徊吏隱而及眞聖例武后亦午橋盧姨所不欲仕子者矧伊挺然人豪乎
遂遐翔如鳳縹浮游若蟬蛻家伽耶而終身其清風逸韻可以廉立千古懦頑或謂之羽
化者誕妄無根古人已以葬在鴻山證之矣蓋其平日緒餘不一槩見乎邦國而施之下
邑者恢恢乎游刃有餘地湖之太山亦一子游所弦歌而與士元枳棘視耒陽者相
去不啻絕遠所以桐鄉祠不風雨磨泐而巋然若靈光我

中廟盛際靈川申先生潛游宦于茲設五學堂造士以十訓持身以三事于文昌有光鄉人
立生祠而敬之用石慶相齊故事也自鷄林黃葉而 蒼葉中興上下七百年間行不由
徑不至偃室如滅明者鄉不乏人而若不憂軒丁先生克仁在 國朝名賢庚降最先斥
佛於

莊憲王朝闢正路之榛蕪束民以藍田約使鄉俗丕變以正言致仕不求聞達聚鄉子弟教
誨不倦訥菴宋先生世琳不羞汙君不忘誠諫楯以禦燕山之解衣及

中廟靖國上封章而斥異端陳民瘼申修學規訓迪蒙士默齋鄭先生彥忠躬行孝弟潛心
義理而妙透象數之奧世稱後堯夫誠齋金先生若默學正趨向治本清白興學校而使
士知方題燭淚而視民如傷繫我及齋先子灌眞實冲澹勤學善誘不染於凶賊募義於

虜亂鳴川先生學者稱也若是者固皆豪傑之士而無愧爲聖人之徒也審矣■

肅廟改紀初 宣額致侑

高宗嗣服後存祀 別單是



列聖朝崇德象賢之深者也目今視舊德如運日棄名教若弁髦之日猶幸柄國者不寶金玉而惟賢惟古昔是寶歲有以嗣葺而增新之儒流之從以銜感而圖此庭實縟儀於累百祀靡遑之餘者長弟林林焉非諸先生之風可百世下聞者起欽而能然乎哉吾道之日復迎細鳥綃於四尺螭首者誠六六年黑夜罷析後一大曙光而能使人肝腸煖矣得門而讀是文乎禮樂遺化之地者於夫子莞爾之笑割雞之戲恍然如復有聞焉而尚識其爲君子愛人小人易使者皆本於學道之化也云銘曰

惟文昌侯挺生鰈域志有雋異妙齡學北文章學術莫先中國逮夫晝錦銅墨還甘顧茲太山割雞美譚黃裳誤筮青山埋簪靈川作宰異代同符鄉建五學造士孔模去思當日生祠亟且允矣不憂首膺儒運布衣闢佛韓表同韻鄉設飲約藍田風聞訥菴誠諫要悟昏庸異端民瘼 改玉陳忠白鹿有政青衿發蒙默齋孝友儘是愷悌早廢公車停身理義玩心高明堯夫後世誠齋貞剛學審趨向莅官冰蘖錫衣自上金玉君子欽之這樣

鳴川家學趾美月峯喜怒鮮形氣象春風遇事坦夷水哉淪淪念我武城七賢肸鬻錫扁永祀 聖恩沆瀣庭樹牲石百世炳烺

時丙子 恩額後二百六十二年戊戌十月上浣金陵後學金替謹述

義城後學金東柱謹書

後學金陵金龍基敬篆

13.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

崔孤雲과申靈川이治縣하고李一齋가講學하며丁不憂軒宋訥庵鄭墨齋金誠齋金鳴川이이어風化하던옛太山이공을은君子鄉이다
故로이곳에武城書院이서고여기에서선비들이倡義한것은偶然한일이아니다韓末의國運은기울어倭賊은乙巳條約을勒結하고國權을强奪하니이에言論은이를糾彈하고一部朝臣과全國各處의儒生들은勒約의無效와五賊의斬首를上疏하다侍從武官閔泳煥이
告同胞文을남기고自刎함에殉國하는烈士가잇따르니抗倭義兵活動은激化하여翌年



丙午에는全國的으로擴大되다 이때에 일어난
 武城書院의 丙午倡義는 湖南의 多數義士들이 崔益鉉을 盟主로 旗幟를 들다 이를 契機로
 그 氣勢가 湖南全域에 떨치다 당초 崔益鉉은 乙
 巳 勒約의 破棄를 上疏하고 倭賊의 罪狀을 痛駁하여 倭政府와 外國公館에 보냈으나 大勢
 를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痛憤하던 中門人 高石
 鎭 崔濟學의 正論을 받아 들여 湖南으로 내려와 井邑郡山內面宗聖里에서 舉事準備 中인
 林炳瓚과 倡義하기로 하니 이는 高石鎭의 識見
 과 崔濟學의 局量 그리고 林炳瓚의 經綸을 믿었기 때문이다 林炳瓚이 崔益鉉을 맞아 執贄
 禮를 올리자 스승인 崔益鉉은 林炳瓚에게 義軍
 의 兵權을 일임하니 丙午三月初一日의 일이다 崔益鉉은 同志를 巡訪 中鎭安 崔濟學의 藏
 修處인 三友堂에서 李浩鎔 鄭栢鉉 등과 方策을
 論議하며 各處에 提携를 請하고 宗聖里로 돌아와 來訪義士들을 接見하다 이때를 前後하
 여 倡義所에 出入한 義士 中 奇宇萬 高光 洵 金相
 璣 李恒善 李錫庸 李圭弘 楊允淑 등은 이 舉事後 各處에서 義陣을 領導하다 한편 林炳瓚은
 決定된 舉事日인 閏四月十三日에 金永相 金箕
 述 金直述 柳種奎 權在一 등의 協助로 武城書院에 儒林을 모으고 砲手를 招集하다 崔益鉉
 은 四月初二日에 倡義疏를 올리고 初八日 潭陽
 龍湫寺에서 奇宇萬 등 儒林五十餘名과 會同하여 同盟錄을 作成하고 檄文을 各邑에 띄우
 다 四月十三日 武城書院에 당도한 崔益鉉은 먼
 저 奉審하고 金叡에게 時到記를 적게 하다 講會를 마친 다음 倡義할 뜻을 밝히니 願從者가
 八十餘名이라 때에 林炳瓚의 義兵百餘名이 습
 勢하니 部署를 定한다 음 隊伍를 整頓하고 바로 泰仁邑에 들어가 邑民을 모아 倡義事實을
 알리고 倭賊의 十六大罪 聲討文을 倭公館에 發
 送하고 바로 縣內武器를 거두다 때에 金禹燮이 數人과 함께 從軍을 願하므로 殘留하여 謀
 報할 것을 命하다 十四日 井邑에서 또 武器를 거
 두고 內藏山에 留陣中 高龍鎭 金在龜 姜鍾會가 領率한 砲軍三十餘名이 加勢하니 義兵이
 三百餘名이라 十五日 孫鍾■이 이를 左右翼으
 로 分陣一場 操鍊하니 軍容이 肅然하다 進軍中 龜巖寺에 營宿하는데 蔡永瓚이 砲手數十
 名을 引率入陣하다 十六日 淳昌邑民의 出迎을
 받고 守城將을 불러 銃砲를 거두자 砲手數十名을 이끌고 黃均昌 金甲述 楊允淑 등이 오니



姜鍾會를火砲長金甲述을首砲手로삼아整軍
 하고바로倭兵一隊를擊退하다谷城淳昌을巡廻中義兵數는倍增하고또金松鉉嚴德祚
 가砲手數十名을이끌고와總軍數는六百이되
 고十九日에는八百名에이르다淳昌邑에서또倭兵數十을擊退하고文書와武器등을鹵
 獲하다二十日倭賊의앞잡이鎭衛隊가前後로
 挾攻해오니崔益鉉이同族相殘은不可라하여그들에게退去하라하고義兵도解散을命
 하다그러나義兵百餘名이차마떠나지못하는
 데때에鎭衛隊가射擊을해오니銃聲이震動하고銃彈이비오듯하다때에鄭時海가적탄
 에殉國하고林炳瓚高石鎭金箕述柳種奎崔濟
 學文達煥林顯周趙愚植趙泳善羅基德李容吉柳海瑢梁在海등十三義士가最後까지
 盟主와더불어남아곤被逮되어刑獄을치르다
 이 밖幕下에서護衛하던義士蔡永贊金甲述이있어이들로하여금機密文書를秘藏脫出
 게하다林炳瓚과함께對馬島에監禁된 崔益鉉
 은그해十一月十七日끝내抗倭殉節하고林炳瓚은後日高宗皇帝의密旨로再舉하려다
 拘禁되어巨文島에서殉節하며諸義士들도
 各義陣에서猛躍하다아壯烈하도다國破君亡之秋에皓首丹心の崔益鉉先生과義血滿
 腔한湖南義士諸公들이여이곳武城
 書院에서드높인舉義의깃발이여이거룩한事蹟을길이欽慕紀念하고자各界人士들의
 뜻을모아石碑를 세우다
 檀君紀元四千參百貳拾五年(西紀一九九二)壬申陽復月十七日
 井邑郡守金成淵撰
 慶州鄭泰書面
 蔚山金鍾燮書
 康津金煥在豎

14. 전 감역 정문술 중수 의조비(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院長校理金鎮祐

執綱直員姜禧淳
訓長幼學柳秉養
摠紳掌議都事崔翼煥
五衛將盧載庸
嘉善崔庸植
道內掌議參奉朴淵維
參奉李亨老
色掌都事崔鳳煥
本齋齋長參奉權沂洙
掌議進士崔永大
色掌幼學金斗泓
儒林掌議幼學禹功鎭
幼學韓吉洙
色掌參奉金斗泓
直月參奉金炳庸
直月 金廷述

重修都有司教官金直述
副有司幼學權載一
參奉李在宇
本孫有司參奉金永胄
參奉鄭漢郁
監董幼學宋丙燮
幼學金煥珍
文簿有司幼學金煥一
幼學趙涓榮

本院道院也隨毀隨補士林之責而邇來士氣
委爾院貌凋殘丁監役汶述慕賢尙義捐金重
修委役於權在一氏閱月告完設白日場試士



勸學使美蹟恐湮沒詢僉議鐫諸碑屬余記實
余不文辭不獲遂記如右
丁巳孟夏康津金煥豐■

15. 전 의관 이경희 불망비(前議官李慶熙不忘碑)

前議官李慶熙不忘碑【尊賢其義一片堪語 院貌重勦俾也可忘】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海平尹用求書

不忘碑記










事業古人所謂三不朽之一也碑而記記其實亦不忘之義也本院道院也凡百需用比他浩繁殆難維持前議官李慶熙慶州望族以慈善見稱於鄉里而際茲本院重修之役捐金出人一層納土田春秋享需朔望供饋永久是圖有院後初有功也斯人斯功頌在口碑何以石爲然目之所睹思從之於不忘之義碑亦不爲無助故僉議詢符屬余爲文槩實而記之尸其事者金炳庸金麟基崔庠植金成基宋榮祚金龍源也

乙丑仲春上澣道康金煥豐撰








進士驪興閔泳碩書

무성서원 소장 고문헌 목록

□ 등록유물 : 49건 46점

연번	유물		시대/연도
	사진	명칭	
1	 	태산서원 원유안	1618-1620
2	 	태산서원 유생안	1639
3	 	무성서원 원생안 1	1773
4	 	무성서원 원생안 2	1800
5	 	심원록1	1732-1771



연번	유물		시대/연도
	사진	명칭	
6			심원록2 1780-1813
7			심원록3 1813-1829
8			심원록4 1831-1857
9			심원록5 1858-1918
10			봉심록1 1875-1915
11			봉심록2 1962

연번	유물		시대/연도
	사진	명칭	
12	 	봉심록3	1993
13	 	완문1	1766
14	 	완문2	1785
15	 	연액기사	1636-1976
16	 	중수일기	1783
17	 	무성서원 제물책	1736
18	 	무성서원 제물기	조선후기



연번	유물		시대/연도
	사진	명칭	
19		무성서원 향수계안	1906
20		무성서원 원규	1924
21		공록	1931
22		무성서원 모현계안 1	1932
23		무성서원 모현계안 2	1933
24		무성서원 모현계안 3	1960
25		무성서원 수지부	1933

연번	유물		시대/연도
	사진	명칭	
26		계산서	1938
27		품고	1938
28		고현동약지	1939
29		병천사지(건)	1942
30		무성서원원안(제2호)	1946
31		무성서원안	1950
32		무성서원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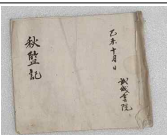


연번	유물		시대/연도
	사진	명칭	
33		무성서원토세미수기	1952-1956
34		태산사부설추진회통문	1957
35		무성서원춘추제관록2	1974
36		무성서원고사선축관계서류	1979
37		무성서원추향제관분정기	1980
38		보수보조금수지부	1980
39		무성서원춘추제관록3	1981
40		제수기	1981
41		무성서원신미추향제수기	1991

연	유물		시대/연도
	사진	명칭	
42			무성서원춘추제관록1 임인년
43			무성서원지 상·하(복사본) 1930
44			제수기 1921(추정)
45			시도기 1921(추정)
46			시도기 1955(추정)
47			무성서원목지부 1933(추정)
48			추렴기 1922(추정)
49			시도기 1922(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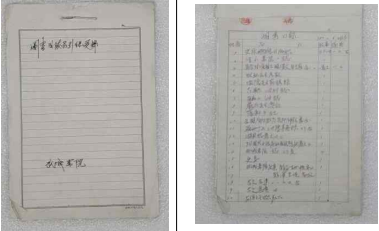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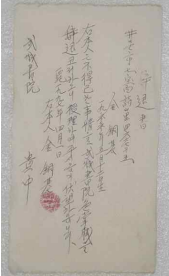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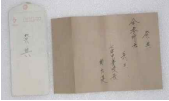
□ 미등록 유물 : 66건 점

연번	유물		시대/연도	수량	
	사진	명칭			
50			무성서원 시도기(時到記)	갑인~무오년	1
51			무성서원 시도기(時到記)	을미년	1
52			무성서원 시도기(時到記)	임술년	1
53			무성서원 시도기(時到記)	계해년	1
54			무성서원 수지부(收支簿)	계유년	1
55			무성서원 추감기(秋監記)	임술년	1
56			무성서원 추감기(秋監記)	을미년	1
57			임신년에 광주군 무양서원에서 무성서원 유림에게 보내는 통문(부 피봉)	임신년	1
58			무성서원 시도기(時到記)	임술~경신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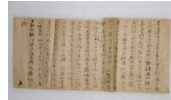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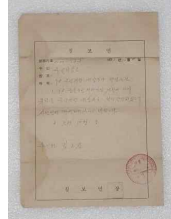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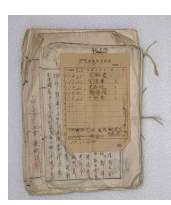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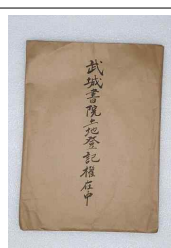
연번	유물		시대/연도	수량	
	사진	명칭			
59			경오년에 돈암서원에서 무성서원에 보내는 통문(부 피봉)	경오년	1
60			고창군 고창향교에서 무성서원에 보낸 성토문(부 피봉)	신미년 1931	1
61			갑자 2월 중정(仲丁) 제관방(祭官分榜)	갑자년	1
62			무성서원 춘향(春享) 제관분방기(祭官分榜記)	경신년~	16
63			고부향교에서 무성서원에 보내는 통문	경신년 1927	1
64			제 통문	임술.신유년	1
65			익산향교에서 무성서원에 보내는 통문(부 피봉)	신미년 1931	-
66			관리인 김흥기(金興基)의 각서(覺書)	1990	1
67			분방시비용기(分榜時費用記)	임술년	1
68			무성서원 추향 예관 망기(부 피봉)	신미년	2



연번	유물		시대/연도	수량
	사진	명칭		
69		도서 및 비품 인계 수록	1983	1
70		고창향교에서 무성서원에 보낸 통문(부 피봉)	경오년	1
71		김동기(金銅基)의 색장직 사퇴서	1997	1
72		갑자년 춘향 제관 분방기	갑자년	1
73		무신년 추향 도조기(부 피봉, 명함)	무신년	3
74		전남 영광에서 김태영이 무성서원에 보낸 편지(부 피봉)	기미년	2
75		무성서원에서 이금영에게 보낸 무오년 추향 제관(부 피봉)	무오년	2
76		김종주(金鍾周)가 무성서원에 보낸 편지(부 피봉)	-	2
77		김병구(金炳龜)가 무성서원에 보낸 편지(부 피봉)	신축년	1
78		정윤식(鄭允湜)이 무성서원에 보낸 제전(祭典)(부 피봉)	197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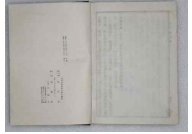
연번	유물		시대/연도	수량
	사진	명칭		
79		김석호(金錫濤)가 무성서원에 보낸 제전(부 피봉)	1978	2
80		김원규(金元奎)가 무성서원에 보낸 문서(부 피봉)	신축년	1
81		최영철(崔泳喆)·최남진(崔南鎭)이 무성서원에 보낸 향촉대(부 피봉)	신축년	1
82		전보	1981(?)	1
83		토세(土稅) 납부 통지서	1982	1
84		편지	-	1
85		전주향교에서 무성서원에 보낸 성토문	신미년 공자탄강 2482	1
86		김병구(金炳龜)가 무성서원에 보낸 편지	신축년 1981	2
87		김용주(金容周)가 무성서원에 보낸 편지	신축년 1981	1
88		김종섭(金鍾燮)이 무성서원에 보낸 편지	신축년 1981	1
89		신정래(申正來)가 무성서원에 보낸 편지	경신년	1
90		이병현(李炳炫)이 무성서원에 보낸 편지	신축년 1981	1
91		박윤안(朴潤安) 도내장의 망기	경신년	1



연번	유물		시대/연도	수량
	사진	명칭		
92		추가 남고서원 추향제관 망기(빈 서식)		1
93		추가 무성서원 추향제관 망기	임술년	1
94		기문	-	1
95		제례의(祭禮儀)	-	1
96		78 주택개량 대상농가 확정 통보문	1977	1
97		추가 춘우정문고(春雨亭文稿) 필양사(泌陽祠) 피봉	-	1
98		우편물 수령증 외	1938	1
99		무성서원 토지 등기권(부 피봉)	1979~	1
100		금구당유고(肯構堂遺稿)	-	1

연번	유물		시대/연도	수량
	사진	명칭		
101	 	한음집(漢陰集)	-	1
102	 	직헌집(直軒集)	-	1
103	 	전주이씨일효삼열록(全州李氏一孝三烈錄)	-	1
104	 	남헌수기 전(藍軒手記 全)	경술년	1
105	 	외암집 건(畏庵集 乾)	-	1
106	 	동곡집(東谷集 건, 곤(乾坤))	기사년?	2
107		병진년 대한 민력(民曆)	1976	1



연번	유물		시대/연도	수량
	사진	명칭		
108	 	고운선생 계원필경 경학수발 합부(孤雲先生合部)	1967	1

무성서원 활성화 방안

1. 무성서원 소장 자료 도록 제작

- 무성서원 소장 문헌자료의 체계적 정리
- 모든 소장 고문헌과 현판·금석문 자료를 종합한 도록 제작
- 규격 : A4 컬러
- 내용
 - 무성서원 관련 자료 해제 : 무성서원 소장 자료 및 타 기관 소장 자료
 - 각 자료별 간략 해제
 - 소장 자료 이미지
- 소요예산 : 50,000천원

2. 무성서원 자료 영인본 제작

- 무성서원 연구 진흥 및 소장 자료의 보존 강화
- 무성서원 소장 자료 총 100종 중 영인대상 98종 2,400면(양면 영인시 1,200면)
- 규격 : A4 흑백
- 내용
 - 자료별 상세 해제 : 10매×98종=980매 매당 10,000원
 - 자료별 영인(기존 촬영자료 확인 후 재촬영)
- 소요예산 : 30,000천원(1,000부 기준, 해제비 포함)

3. 무성서원 자료 번역 사업

1)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저자사항 김인기(金麟基) 編
판 사 항 석판본(石版本)



발행사항 井邑: 井邑郡金麟基家, 1936

형태사항 3卷4冊; 31.4 x 21.1 cm

주기사항 序: 歲旃蒙赤奮若(1955)...金煥豐

序: 歲己巳(1929)...金麟基

序: 歲昭陽作噩(1933)...朴佑緒

跋: 歲乙亥(1935)...金相洙

※ 3권 4책이나 3책과 4책은 동일함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글자수(추정) : 1책 58,800자, 2책 400자, 3책 33,600자

71.

번역 글자수 : 약 160,000자/ 매수: 4,000매(산문 25% 적용)

- 소요예산 : 120,000천원(전북연구원 번역자료 활용시 소요예산은 약 80,000천원 추정)

2) 『중수일기(重修日記)』 외 기문류 등

- 1783년 최치원 영정 봉안 전, 사당 중수 과정과 영당 이건 상황이 기록된 역사성 있는 사료
- 부조기(扶助記), 물력수입기(物力收入記), 이안헌관집사기(移安獻官執事記), 봉안영정일기(奉安影幀日記) 등 수록

- 소요예산 : 50,000천원

3. 무성서원 연구 진흥 사업

1) 무성서원 유학자 관련 자료 조사 수집 연구

- 서원 배향 인물관련 문헌, 유적 자료 수집
- 19세기 이후 무성서원 재건, 중흥을 주도한 유학자와 문헌, 유적 자료 수집
- 무성서원 재건, 중흥의 중심 문종인 도강 김씨 문헌자료 조사 수집

2) 무성서원의 인적 네트워크 연구

- 무성서원 부흥에 노력한 김환풍, 김인기 등의학맥, 문중, 사회적 역할 고찰
- 1905년 이후 최익현, 임병찬 등 유학자의 의병 거점지로 무성서원 위상 확립

3) 무성서원 유교문화의 현대적 활용 방안 연구

- 무성서원은 최치원 배향 서원이자 고현동 향약, 흥학지로서 유교문화의 기점임
- 선비문화의 중심지로서 무성서원의 문화사적 의미를 확장시켜 현대인의 삶의 지표에 맞는 교육 가능한 방안 고찰

4. 연구서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방안

1) 무성서원 배향인물 학술대회 개최

- 최치원의 생사당과 태산사, 정극인의고현동 향약 창설과 향학당, 신잠의5학당 개설과 향약 진흥등

2) 무성서원 공간 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

3) 19세기 이후 무성서원 부흥 주도 인물 등장과 사회적 의미

4)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을 둘러싼 인적 네트워크 구축 양상

5) 무성서원의 활성화 방안 및 현재적 역할

5. 무성서원 활성화 방안

1) 무성서원의 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운영

- 인접 자원 활용 : 태인향교, 고현동 향약, 무성서원
- 무성서원 인근 역사문화자원을 종합한 ‘서원 문화 탐방’프로그램 개발

2) 서원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서원 본연의 교육기능을 살린 ‘선비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 500년 전통 ‘고현동 향약과 향음주례체험’프로그램 개발

3) 홍보자료 제작

- 무성서원의 역사성과 정신을 담은 해설자료 제작
- 대중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홍보자료 제작



연구책임자	홍성덕(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백진우(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채현경(전주대 한국고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선영(전주대 한국고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조성민(전주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수료)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발행일 : 2020년 12월 18일

발행처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고전학연구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618호